



글로벌 경쟁계를 주도할 인재는
바로 너!

202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가이드

논술전형 주요사항 안내 02

논술전형 준비방법 04

2020학년도 모의논술 06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 토요일 오전(인문계) 16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 토요일 오후(인문계) 25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 일요일 오전(사회계) 33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 일요일 오후(사회계) 42

2019학년도 모의논술 51



※ 본 논술가이드는 2020학년도 한국외대 수시모집 논술전형에 대하여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원서접수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수시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논술전형 주요사항 안내

선발인원

493명
서울 378명
글로벌 115명



전형방법

논술시험

학생부 교과

700점(70%)

300점(30%)

논술전형에서 학생부교과(내신)성적의 실제 영향력은 매우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유형과 출제 의도 파악. 모의논술과 기출문제를 통해 새롭게 바뀐 한국외대 논술시험 유형을 파악해 봅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캠퍼스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비고
서울	전 모집단위 (LD학부, LT학부 제외)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회탐구(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이내이고, 한국사영역이 4등급 이내	제2외국어 및 한문을 사회탐구 영역의 1과목으로 대체 가능
	LD학부, LT학부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회탐구(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4이내이고, 한국사영역이 4등급 이내	

*글로벌캠퍼스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수능 영역 중 일부 영역만 응시해도 OK

전형일정

구분	논술시험			
	사회계열		인문계열	
전형일	2019. 11. 23(토) 10:00 ~ 11:40	2019. 11. 23(토) 15:00 ~ 16:40	2019. 11. 24(일) 10:00 ~ 11:40	2019. 11. 24(일) 15:00 ~ 16:40
모집단위	서울 사회과학대학 국제학부 LD학부 글로벌 경상대학	서울 상경대학 경영대학 LT학부	서울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중국어대학	서울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일본어대학 사범대학 글로벌 해당 모집단위 (경상대학 제외)
장소	서울캠퍼스 지정장소			

CHECK POINT

☑ 1. 서울캠퍼스 지원자는 수능시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매년 서울캠퍼스 논술전형 지원자의 60~65%가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지원자들은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위해 수능시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2. 최초경쟁률을 보면 합격가능성이 보인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앞서 언급한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자와 논술시험 결사자 발생으로 대부분의 모집단위 실질경쟁률이 1/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최초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인기 모집단위들의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도 15:1 이상의 경쟁률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여 실질경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모집단위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3. 논술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의 실제 영향력은 매우 적다!

논술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의 등급 간 환산점수 차이는 논술시험 문항별 채점 시 발생하는 점수 차이에 비해 굉장히 작습니다. 1,000점 만점(논술시험 700점, 학생부 교과성적 300점)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의 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와 같이 매우 적기 때문에 내신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논술고사에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전형 \ 등급	1	2	3	4	5	6	7	8	9
논술전형	300	299	297	294	290	280	270	240	0

논술전형 준비방법

논술시험 출제방향

- 통합교과형 논술
-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 인문계열 영어지문, 사회계열 통계 및 도표 자료 제시
-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 중요

출제방향 TIP

Check Point 1

한국외대 논술시험은 통합논술을 지향합니다.

통합교과형 논술은 단순 암기를 통한 문제 풀이를 지양하고,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이를 문제 해결에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통합논술의 특징은 첫째, 제시문의 형식과 분야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설득적 요소와 설명적 요소가 담긴 글,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 작품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분야 등에 걸쳐 다채롭게 제시됩니다. 둘째, 문제가 세분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 능력, 비판적 사고력과 응용력,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복합적인 문항이 주어집니다.

Check Point 2

한국외대 논술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출제합니다.

논술시험의 출제 전 과정에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출제 이후에 단순히 감수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본교 교수진들과 함께 출제방향 설정, 지문 선정, 문항 출제, 감수 등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논술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시문을 선정할 때에는 교과서와 EBS 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제시문의 경우 그 핵심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Check Point 3

한국외대 논술시험은 모집단위에 따라 영어지문 또는 통계 및 도표 자료가 주어집니다.

인문계열 영어지문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어휘나 구문 수준(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출제되므로 기본에 충실하게 대비하면 됩니다. 제시문을 읽고 핵심 쟁점을 파악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사회계열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통계 및 도표, 그래프 등이 자료로 제시되는데, 수리 논술이 아니라 자료 해석 역량을 요구합니다.

인문계열 모집단위		사회계열 모집단위	
서울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아시아 언어문화대학, 중국어대학, 일본어대학, 사범대학	서울	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국제학부, LD학부, IT학부
글로벌	경상대학 제외한 전 모집단위	글로벌	경상대학

Check Point 4

한국외대 논술시험은 사고 과정 중심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한국외대 논술시험은 단편적 결과만을 서술하는 유형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 과정과 이를 지지하는 타당한 근거를 함께 밝히는 과정 중심의 문제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스스로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분석하고 순차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역량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논술시험 문제유형

- 분류·요약형
- 비판·평가형
- 적용·추론형

인문계열

문항	유형	분량	배점	제시문	시험시간
1	분류·요약	400자 내외	210	5개~6개 (영어지문 1개 포함)	100분
2	비판·평가	500자 내외	210		
3	적용·추론	600자 내외	280		

사회계열

문항	유형	분량	배점	제시문	시험시간
1	분류·요약	400자 내외	210	5개~6개 (통계·도표자료 1개 포함)	100분
2	비판·평가	500자 내외	210		
3	적용·추론	600자 내외	280		

문제유형 TIP

Check Point 1

1번 문제는 분류·요약형 문제입니다.

분류·요약형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제시문들을 문항 의도에 맞게 분류한 후,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이 때 접속어나 연결 어구를 적절히 사용하면 제시문을 자연스럽게 연관시키고 효율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어는 보통 제시문 속에 나타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회적인 표현이나 예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는 제시문이 주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어휘를 새롭게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는 제시문의 구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제시문 내 문장이 요지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이를 그대로 옮긴다면 독창성이 발휘된 좋은 요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나 제시문에 사용된 다른 핵심어와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Point 2

2번 문제는 비판·평가형 문제입니다.

비판·평가형 문제는 논지에 동의하거나, 또는 논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논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서로 상반된 입장의 제시문이 주어지고 하나의 입장을 자유롭게 선택해 상대방 의견을 비판하게 하는 경우,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대입하여 논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상반된 의견 중 하나를 지정해, 자신의 견해와 상관없이 한 쪽 입장을 비판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견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할 수 있는지 평소 연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한 입장의 장단점과 예시를 서술할 때, 제시문에 이미 거론된 내용들만 반복해서 언급한다거나 지나치게 판에 박힌 사회현상만을 논술할 경우, 식상한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한 창의적인 분석과 참신한 예시를 위해서는 사회현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글을 읽거나 토론을 통해 입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Check Point 3

3번 문제는 적용·추론형 문제입니다.

적용·추론형 문제는 영어지문 또는 도표나 그래프를 바탕으로 제시문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제시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우선, 자료에서 주어진 명제 조건을 확인하고 적용의 내용과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질문에 이미 절반의 답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제를 여러 번 읽어 출제자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디에 적용하여 추론해나갈 것인지 숙지하고 단계적으로 답안을 서술해야 합니다. 적용·추론형 문제는 출제자가 의도한 답안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바, 자료의 단순 이해보다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하여 단계적, 논리적 서술에 무게 중심을 두고 명확한 언어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학년도 모의논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

갈매기 조너선은 독창성과 자립심이 남달라 더 높이, 빠르게 나는 다양한 비행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한다. 조너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에게 비행이라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권리이다. 자유는 개인의 본질 그 자체이며,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의식이든 미신이든 아니면 또 어떤 형태의 제약이든 떨쳐버려야 한다.” 이러한 조너선의 모습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는 ‘갈매기 집단의 위엄과 전통에 먹칠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집단적으로 이동하며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너선은 매일 홀로 비행 연습에 매진하고, 결국 다른 갈매기 사회의 갈매기들에게 그가 고안해낸 다양한 비행법을 전수하며 보다 고차원적인 삶의 의미를 깨우쳐준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재구성

(다)

조직에서의 효율적 의사결정 방식은 성공적인 조직 운영에 필수적이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조직은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단시간에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엄격히 지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 협업과 타협은 ‘의외의 묘안’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최고의 전술서인 『손자병법』의 영어명이 ‘전쟁의 과학’이 아니라 ‘전쟁의 예술’이듯, 구성원 개인의 직감이나 창의성, 도전정신은 훨씬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즉, 조직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때 개인의 독창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어야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 ‘Decision Making - Art or Science?’(www.illumine.co.uk)에서 재구성

(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각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상황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정

보의 원천으로 삼아 자신이 할 행동을 결정하는데, 상황에 대한 타인의 해석이 더 정확해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셰리프의 실험에 따르면,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한 점을 바라보도록 하고 불빛이 움직인 거리를 추정하도록 했을 때, 피험자들은 혼자서 불빛을 보았을 경우에는 각자 다양한 추정치를 제시하였지만, 집단으로 함께 모여서 타인들의 추정치를 들었을 때에는 그 말에 근거해 개인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모두 비슷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타인을 정보의 원천으로 삼아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중략>

한편 사회적 관계에 관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토대로 사람들은 타인에게 좋게 보이기를 원해서 타인이 하는 대로 따라 하고자 한다. 즉, 불확실한 상황이나 무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확신에도 불구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고 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에 동조하게 된다. 집단의 구성원은 그 집단의 사회적 규범에 동조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회적 규범이란 용인되는 행동, 가치에 관한 암묵적인 규칙을 말한다.

-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에서 재구성

(마)



- 『고등학교 경제』에서 재구성

(바)

가족은 남성과 여성, 주인과 노예라는 기본적인 관계에서 최초로 등장한 공동체로서 인간의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 일상적 욕구 이상의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몇 가족들이 결합해야 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가 마을이다. 국가는 여러 마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완전하고 자족적인 공동체다.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고,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된다. 국가는 다른 공동체들의 최종 목표인데, 사물의 본성은 그것의 마지막 혹은 완성된 형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국가는 자연적 창조물이며, 사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국가는 그 본성상 가족이나 개인보다 앞선다. 전체는 필연적으로 부분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는 몸 전체가 파괴되면 손과 발도 생존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개인 또한 고립 상태에서 자족할 수 없어 국가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판단이나 행동 기준은 국가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

- 『고등학교 철학』에서 재구성

(사)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제공한 지식을 검색하여 읽을 수 있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글을 쓸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고치는 것 또한 자유롭게 되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교육 수준의 상승과 정보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전문가로 공인받지 않은 일반인도 자신들이 생활에서 체험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식 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집단 지성이라 부른다.

집단 지성은 정보 사회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핵심 개념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개별 누리꾼이 서로 힘을 모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는데, 이렇게 모인 힘을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집단 지성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자신의 견해만 고집하지 않고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의 폭이 넓어져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 <중략> 집단 지성은 ‘너 자신을 알라’를 포함하며 ‘함께 사유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아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처럼 집단 지성은 집단에 매몰되지 않고 개인의 특이성을 키우며 함께 성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서 재구성

[문제 1]

(가)~(바)는 의사결정 기준에 관한 글이다. 제시문들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들을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문제 2]

(사)를 활용하여 (라)와 (마)에서 사용한 의사결정 기준의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제 3] (인문계)

아래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1]의 두 유형 중 어느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이익 창출에 더 효과적인지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When it comes to keeping employees happy and productive, companies such as Google lead the way. The brand is famous for various ways of perking up* its employees: pool tables, bowling alleys, and free food. Now other companies are catching on and creating breakout zones and gaming areas, where employees can chill out, chat, and stimulate their creative juices.

Why? Because organisations that promote a culture of creativity are likely to have more motivated and productive employees. In the startup stage, companies need to establish their work systems, which requires the cooperation and conformity** on the part of the employees. In other words, to distribute the limited resources in the most efficient way, startups should focus more on building collective identity than on investing for individual happiness.

A strong team spirit such as this is necessary for a company to settle in and begin to make shortterm profits. But for the sake of sustainable longterm productivity, the happiness of each employee is the most import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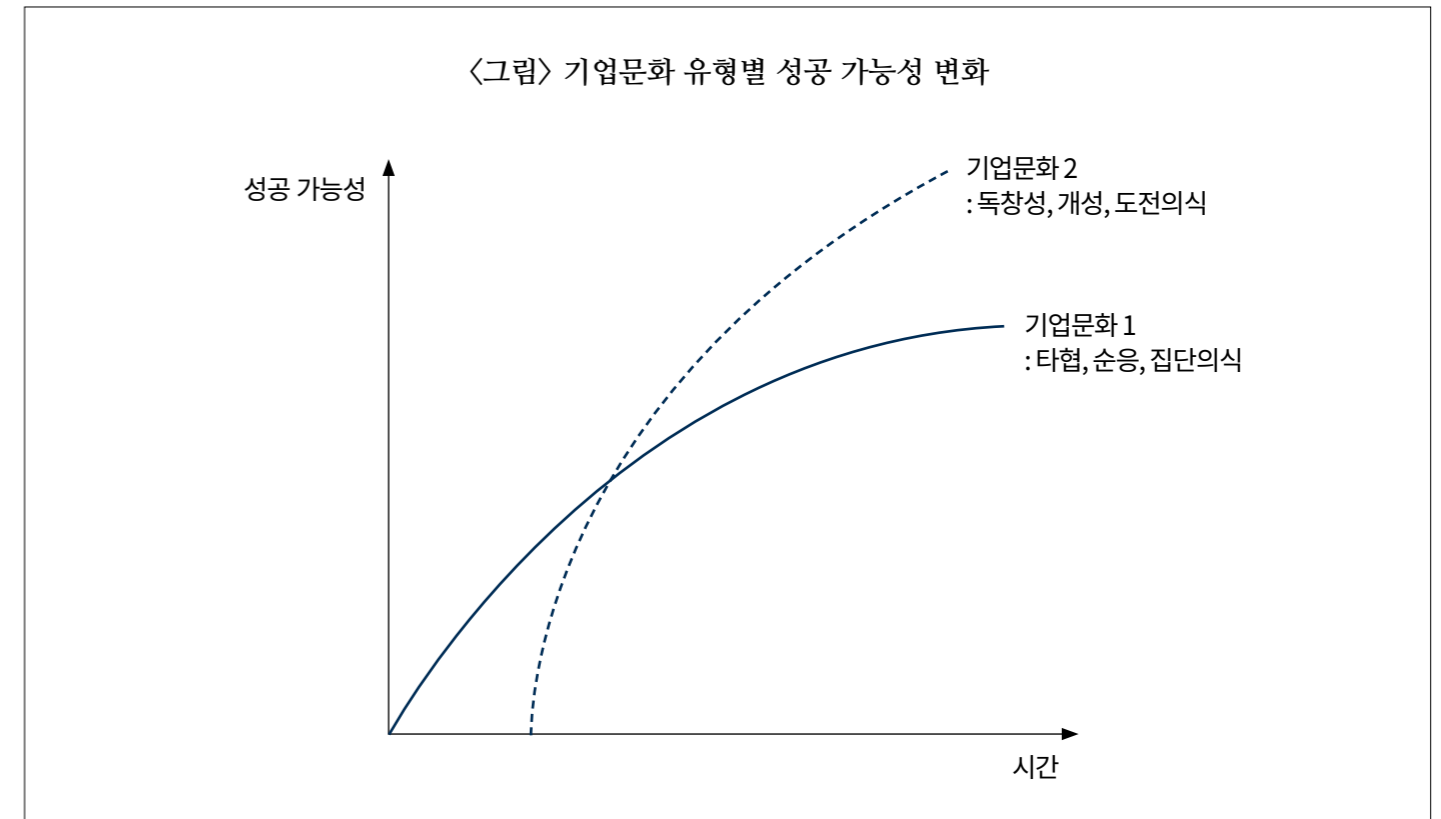
- The Guardian, 2016년 2월 11일자에서 재구성

* perk up : 활기차게 만들다

** conformity : 순응, 동조

[문제 3] (사회계)

당신은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성장시키고자 한다. 다음 <그림>은 의사결정 기준이 반영된 기업문화의 특징과 이에 따른 성공 가능성이다. <그림>을 해석하고 [문제 1]의 두 유형을 모두 고려하여 어떤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할지를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문항세트는 인문, 사회 계열의 두 분야로 나누어 출제하였고, 각 계열은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1]은 분류·요약, [문제 2]는 비판·평가, [문제 3]은 적용·추론의 능력을 측정한다. 세 문항 중 [문제 1]과 [문제 2]는 계열 공통문항이며 마지막 [문제 3]은 계열별로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 인문계열은 영어지문을 추가 제시하여 외국어 지문의 이해 능력 측정을 포함시켰고, 사회계열은 자료의 해석을 통한 추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각 문항마다 개별적인 측정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제시문의 핵심어, 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분류, 연계하는 능력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 문항별 출제 의도는 아래와 같다.

[문제 1]은 제시문 (가)부터 제시문 (바)까지를 읽은 후,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제시문을 구분하고,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시문들로부터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 개인과 집단이란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을 읽어낼 수 있는지, 나아가 (나), (다), (마)를 ‘개인’에 입각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가), (라), (바)를 ‘집단’을 중시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섯 개의 제시문을 해석, 요약하도록 함으로써 요약 능력을 보고자 하였다.

[문제 2]는 집단 지성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에 나타난 집단주의 결정방식과 (마)에 나타난 개인주의 결정방식의 한계점을 비판하는 문제이다. 이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의 기초가 되는 비판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사)는 집단 지성을 교육수준의 향상과 정보기술의 발달을 통해 일반인들도 지식 생산에 기여하는 지식의 공유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특이성이 집단에 매몰되지 않는 대안으로 집단 지성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을 바탕으로 (라)에 나타난 집단주의 결정방식과 (마)에 나타난 개인주의 결정방식을 묶어서 평가하고, 집단 지성의 특성에 비춰 각 결정방식의 한계점을 정확히 비판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제 3] (인문계)에서는 주어진 영어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요지를 파악하여, [문제 1]에서 파악한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 방식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먼저 영어지문의 요지는 “혁신기업으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사고를 강조하는 기업문화보다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 낼 수 있는 기업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며, 이를 구글의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은 제시문 (가)~(바)를 통해 ‘개인’과 ‘집단’이라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중심이 되는 핵심어를 찾았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 두 개념을 비교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한 후, 영어지문에 설명된 상황을 해석할 경우 문항의 답안을 적절하게 작성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이 적절히, 그리고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이 문항의 정답 작성이 가능하다. 첫째, [문제 1]의 풀이과정에서 발견해야 하는 핵심어인 “개인”과 “집단”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대립적인 분류, 둘째, 영어지문의 정확한 내용 파악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조건을 도출하고, 셋째, 이를 두 가지 유형의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와 연계시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수험자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정확히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과, 이러한 추론의 진행을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능력을 함께 보려는 것이 이 문제출제의 의도이다.

[문제 3] (인문계)의 영어 지문 번역

직원들을 행복하고 생산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구글 같은 회사들이 선도적이다. 구글은 당구대, 볼링장, 공짜 음식 등, 직원들을 활기차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다른 회사들로 이러한 추세를 따라 휴식을 하거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직원들이 느긋이 쉬며 담소를 나누고 창의력의 샘을 자극하도록 만들고 있다. 왜? 창의성의 문화를 장려하는 집단에 더 의욕 많고 생산성 높은 직원들이 많

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창업 초기에 회사들은 근무 체계를 잡아야하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협동과 순응을 필수로 한다. 즉,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스타트업 회사들은 개인의 행복에 투자하기보다 집단 정체성 형성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같이 강력한 팀 정신은 회사가 정착해 단기적 이익을 창출해내기 시작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장기적 생산성을 위해서는 개인 직원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 3] (사회계)은 기업문화의 유형에 따른 성공 가능성이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함에 있어 [문제 1]에 제시된 두 유형의 의사결정 방식을 특징을 반영하여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그래프는 타협, 순응을 강조하는 “기업문화 1”과 독창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 2”의 성공가능성을 기업의 발전단계별로 비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는 발전초기 단계와 성숙단계에서 기업의 성공에 필요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의사결정 방식을 포함하는 기업문화 또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이익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집단 중심의 기업문화가 적합할 수 있으나, 성숙 단계에서는 개인의 창의성, 도전정신에 발휘될 수 있는 개인 중심의 기업문화의 형성이 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것이다. 적절한 답안의 작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이 적절히, 그리고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문제 1]의 풀이과정에서 발견해야 하는 핵심어인 “개인”과 “집단”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대립적인 분류, 둘째, 기업의 단기적, 장기적 발전을 위한 조건을 도출하고, 셋째, 이를 두 가지 유형의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와 연계시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수험자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정확히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과, 이러한 추론의 진행을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능력을 함께 보려는 것이 이 문제출제의 의도이다.

채점 기준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기준의 두 유형의 핵심어인 “개인”과 “집단”이 언급되어야 함. • 6개 제시문들이 ‘개인’과 ‘집단’이란 유형에 맞춰 분류되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 	210점
문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에 나타난 집단 지성에 관한 개념이 서술되어야 함. • (라)와 (마)에 나타난 의사결정 기준의 한계가 무엇인지 언급해야 함. • (사)에 나타난 집단 지성이 (라), (마)에 나타난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밝혀야 함. 	210점
문제 3	<p><인문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1]의 풀이과정에서 논의되었을 대립적인 개념인 “개인”과 “집단”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이 언급되어야 함. • 추가로 제시된 영어지문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핵심 개념인 기업문화에 따른 성공가능성을 인지하고 그 차이점과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설명되어야 함. • 기업이 특정 발전단계를 지나가면 집단 중심의 결정 방식보다는, 개인 중심의 결정방식이 더 유효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위 과정들이 적절한 어휘선택과 논리적인 구성을 통해 가독성 있게 서술되어야 함. <p><사회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1]의 풀이과정에서 논의되었을 대립적인 개념인 “개인”과 “집단”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이 언급되어야 함. • 추가로 제시된 그래프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핵심 개념인 기업문화에 따른 성공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 차이점과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설명되어야 함. • 기업이 특정 발전단계를 지나가면 집단 중심의 결정 방식보다는, 개인 중심의 결정방식이 더 유효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위 과정들이 적절한 어휘선택과 논리적인 구성을 통해 가독성 있게 서술되어야 함. 	280점

[문제 1]

등급	채점기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의 제시문을 ‘개인중심’과 ‘집단중심’이란 두 의사결정 기준으로 나누되, 제시문 (나, 다, 마)를 전자의 입장으로, (가, 라, 바)를 후자의 입장으로 기술한 경우 • 이와 더불어 각 제시문의 요약에 ‘단체/팀/팀워크의 중요성’(가), ‘독창성/자유’(나), ‘개인의 독창성’(다), ‘사회적 규범/동조’(라), ‘개인의 이익/공동체에 부정적인 결과’(마), ‘개인이 의존하는 국가’(바) 등의 핵심어를 포함하여 기술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핵심어 대신 근접어를 사용한 경우 • 문장구성 등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의사결정 기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개인’과 ‘집단’이란 방식에 대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 • 각 제시문의 요약이 부실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개인’과 ‘집단’의 구별이 완전하지 못하고 제시문들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 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C	• 제시문 중 일부만을 요약하거나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지 못한 경우
D	• 일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답과 거리가 멀고 글자 수를 현저히 채우지 못한 경우
F	•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문제 2]

등급	채점기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에 나타난 집단 지성에 관한 개념이 서술되어야 함. • (라)에 나타난 의사결정 기준의 한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함. -개인의 독창성(특이성)의 매물 • (마)에 나타난 의사결정 기준의 한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함. -공공의 이익 저해 • (사)에 나타난 집단 지성이 (라)에 나타난 개인의 독창성(특이성)이 매몰되는 현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밝혀야 함. • (사)에 나타난 집단 지성이 (마)에 나타난 개인과 공공의 이익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핵심어를 파악하였으나 핵심어에 근접한 표현 사용 -문장의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못함. -문장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실수로 인한 문법 오류 등이 드물게 나타남.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 (라), (마)에 나타난 한계점 중 한 쪽만 올바르게 밝힌 경우 - (사)의 집단 지성과 (라) 또는 (마)의 부정적 결과를 정확하게 연결하지 못한 경우 - (사)의 집단 지성과 (라) 또는 (마)의 부정적 결과를 한 쪽만 정확하게 연결한 경우 - 예시가 없고, 문장의 표현이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음. - 어휘 사용의 실수가 가끔 나타남. -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가끔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 B+의 감점 요인이 2 항목 이상 포함됨. - B+의 감점 요인 중 1 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C	• (사)의 요지를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하고 그 관점에서 (라), (마)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경우
D	• (라), (마), (사)의 내용 중 핵심 내용과 관계없는 일부만을 나열한 경우
F	•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문제 3] (인문계)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지문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기업발전의 초기 단계에는 가용재원의 총집중을 위해 집단 중심의 기업문화가 성공에 더 유리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독창성, 혁신이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인의 의욕과 행복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업문화 형성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한 경우 • 영어지문을 통해 설명된 기업의 사례를 [문제1]에서 거론한 “개인”과 “집단” 중심의 결정방식의 특성과 연관지어 바람직한 결정방식의 도입의 방향을 제시한 경우 • 문장의 표현과 문장 간 연결, 논리구조가 자연스러운 경우 • [가점 요인] A0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항목을 기술한 경우 A+로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을 추구하는 선도기업일수록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며, 그 전략의 구성요소로는 구성원의 창의성, 행복을 증진시키는 기업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술한 경우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의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전략에 있어 협업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초기의 전략과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성숙단계로 구분해 내지 못하는 경우 - 문장의 표현, 문장 간 연결, 논리구조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경우 - 어휘사용에 있어서의 실수 또는 문법 오류가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지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한 기업문화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집단 중심과 개인 중심 문화의 차이점을 밝혔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왜 개인의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한 경우 - [문제 1]의 두 유형에 대한 설명과 답안을 구체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는 경우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지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한 기업문화의 중요성은 인식하였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인 관점에서 왜 구성원의 독창성, 행복,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업문화의 확립이 이익 창출과 성공에 적합한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 [문제 1]의 두 유형에 대한 설명과 영어지문을 연계시키지 못하는 경우 - A0, B+에 제시된 논리적 분석과 서술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문장, 어휘 등에 있어 오류가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
C	• 영어지문과 [문제1]의 요지는 기술하였으나 비교·분석 모두 모호한 경우	
D	• 영어지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1]의 요지도 제시하지 못한 경우	
F	• 문제와 전혀 다른 내용을 서술한 경우	

[문제 3] (사회계)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프의 해석에 있어 기업문화를 개인과 집단 중심으로 구분한 후,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성공 가능성의 변화를 명확하게 설명한 경우 • 기업발전의 초기 단계에는 집단 중심의 기업문화가 성공에 더 유리하나 성숙 단계에는 독창성, 혁신이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개인 중심의 기업문화 형성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한 경우 • 그래프에 설명된 기업문화에 따른 성공가능성을 [문제1]에서 거론한 “개인”과 “집단” 중심의 결정 방식의 특성과 연관지은 경우 • [가점 요인] A0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항목을 기술한 경우 A+로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협과 순응, 집단외식에 기초한 기업문화를 채택한 기업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프 해석을 통해 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개인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이 더 높은 성공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을 서술하고, 그 원인으로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독창성과 혁신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혔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이 집단 중심에 비해 독창성, 개성, 도전의식을 높이는데 유리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프 해석을 통해 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개인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이 더 높은 성공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은 파악하였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왜 개인의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한 경우 - [문제 1]의 두 유형에 대한 설명과 답안을 구체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는 경우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통해 기업문화 유형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다르다는 점은 설명하였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문화의 유형별 특징을 개인 중심, 집단 중심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 [문제 1]의 두 유형에 대한 설명과 그래프를 연계시키지 못하는 경우
C	• 그래프나 [문제1]의 요지는 기술하였으나 비교·분석 모두 모호한 경우	
D	•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1]의 요지도 제시하지 못한 경우	
F	• 문제와 전혀 다른 내용을 서술한 경우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 토요일 오전(인문계)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치인 A씨는 장관 시절에 국장급 이상 인사만을 자신이 결정하고, 그 이하의 인사는 국장단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국장들이 필요한 직원들을 알아서 스카우트하거나 트레이드하도록 한 것이다. 그는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른바 권한 위임형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런 맥락에서 참모들에게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자신이 최고 책임자인 것처럼 종합적으로 생각해 판단하라”고 늘 주문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다가 실패한 사람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는 편이었다. 대신에 게으르거나 보신주의적 자세를 보이는 사람에겐 “젊은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며 화를 내곤 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조직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안에는 격을 따지지 않고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달라붙곤 했다. 재직 당시 부처 산하 공기업의 공적자금 지원문제를 놓고 경제부처와 이견이 발생하자,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경제부처 실무자와 직접 만나 몇 시간씩 토론을 벌인 끝에 의견을 관철시킨 일화는 유명하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를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장관으로 기억한다.

- 한겨레신문(2002.01.30.)에서 재구성

(나)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 아마존(Amazon)의 최고경영자이자 회장인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카리스마, 탁월한 사업 능력, 과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강인한 추진력과 목표 의식으로 원하는 바를 이뤄낸다. 베조스의 탁월한 전문성과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에 미친 영향력은 많은 이에게 영감을 준다. 그러나 베조스와 함께 일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우두머리 수컷(alpha male)’으로 묘사되는 지시형 리더의 전형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만 일을 추진하며, 빈틈없는 성과중심주의자로 평가된다.

이러한 지시형 리더십의 특징은 높은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업무 목표를 제시하고, 업무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는 점이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 완성에 필요한 계획도 세워주고,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추궁하기도 한다.

- 이코노미조선(2016.07.18.)에서 재구성

(다)

한나라를 개국한 고조 유방은 한신, 장량, 소하 등 기라성 같은 인재들을 모아 초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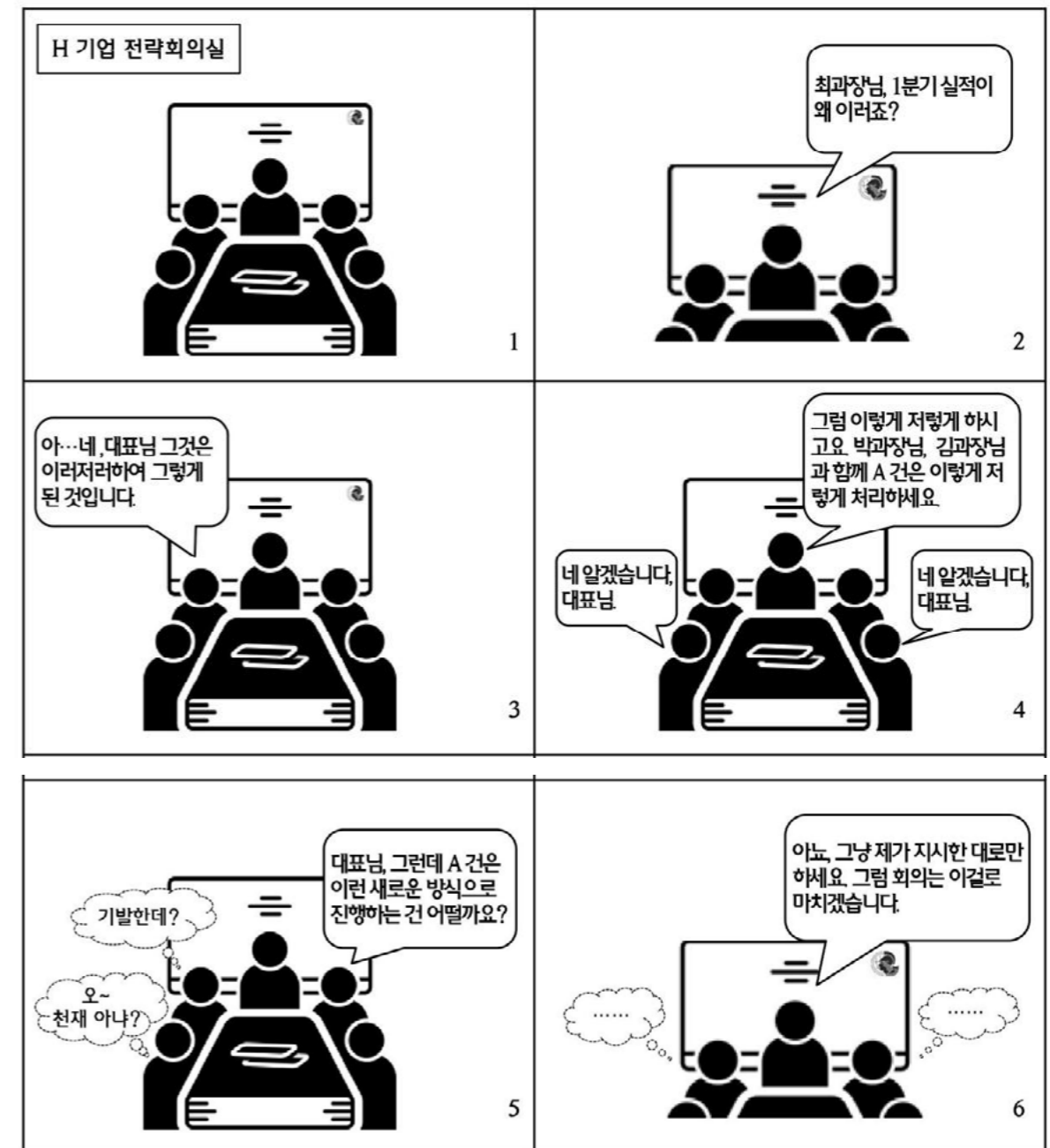
“본영에서 지략을 짜고 천 리 밖에서 승리를 결정하는 점에서 나[유방]는 장량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내정의 충실, 민생의 안전, 군량의 조달, 보급로의 확보라는 점에서 나는 소하에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백만이나 되는 대군을 자유자재로 지휘하며 승리를 거둔다는 점에서 나는 한신에 미치지 못한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나를

능가하는 걸물들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걸물들을 적절하게 기용할 줄 알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천하를 얻은 이유이다. 그러나 항우에게는 범증이라는 걸물이 있었지만 그는 이 한 사람조차도 잘 활용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긴 이유이다.”

유방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첫째, 부하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할 줄 알았으며, 둘째, 부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잘 운용할 줄 알았고, 셋째, 부하들에게 권한을 적극적으로 위임했다. 그는 조직 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부하들의 의견을 구하고, 진행 과정에서는 그들 스스로 결단을 내리게 했고, 그 결과 부하들은 강한 참여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유방의 리더십 덕에 한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 강관수, 「역사와 위인에게 배우는 리더십」에서 재구성

(라)



(마)

The Kyocera Group produces semi-conductors and copiers as well as parts for electronics, cars and medical equipments in Japan and overseas. Its annual sales amounted to about 15 trillion won last year. Kazuo Inamori, the honorary chairman of Kyocera, is respected as Japan's "Living God of Business Management." He claims that "corporate management is not about advancing know-how and technology, but about pursuing human-centered principles that contain values of concern for others and employees' happiness." Inamori has empowered* his employees to achieve participative management by providing them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make important management decisions on their own. In this autonomous** atmosphere, employees have been able to demonstrate a higher level of efficiency and creativity. It is time to recall an old saying: "Hire only those you can trust, trust fully those you did hire."

* empower: 권한을 위임하다 / ** autonomous: 자율적인
- 중앙일보(2015.10.01.)에서 재구성

(바)

군주는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거칠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군대란 그 지도자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군사 작전에 적합하게 단결하거나 만반의 태도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략>

스키피오는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군대는 스페인에서 그에 게 반란을 일으켰다. 그 유일한 이유는 그가 너무나 온정적이어서 병사들에게 필요 이상의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서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로마 군대를 부패시킨 장본인이라는 이유로 스키피오를 원로원에 탄핵한 바 있다. 또한 스키피오는 자신이 임명한 지방 장관이 로크리스 지역의 주민들을 약탈했을 때 주민들을 구제하지 않았고, 그 오만한 지방 장관을 처벌하지도 않았다.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문제 1]

(가)~(마)는 리더십 유형에 관한 글이다. 제시문들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문제 2]

(바)에 나타난 스키피오의 리더십을 (가)의 정치인 A의 리더십과 비교·평가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제 3]

[문제 1]의 두 리더십 유형을 활용하여, 아래 ①의 A 기업의 초기 성장에 동력이 되었던 리더십과 향후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적절한 리더십을 아래 ②와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① 한국 경제는 1970년대 원유 파동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위기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이른바 ‘창업 1세대’들을 비롯한 우리 기업가들은 남다른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훗날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우리 기업들의 위기 극복 저력은 아마도 우리 기업가들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남다른 유전자, 즉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전해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불굴의 기업가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쇼핑몰, 게임 및 앱 제작 등과 같은 업종에 다양한 스타트업(startup)이 등장하고 있다. A 기업은 2001년에 참신한 디자인과 개성 있는 감성을 중시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출발하였다. 창업 당시 다섯 명의 대학 동기로 이루어진 A 기업은 열린 소통을 강조하고 각각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에 필요한 일을 찾아 자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대표의 리더십 하에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이후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부서가 신설되었고, 신입 직원들이 채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성장으로 조직 내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에 한계가 나타났고, 구성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급격히 증가한 주문과 고객 불만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 『고등학교 경제』에서 재구성

② 전통적인 리더십 연구들은 특성론과 행동론에 중점을 두었다. 특성론과 행동론에 따르면 리더십의 효과성은 리더의 특성이나 행동패턴에 기인하며,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후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조직구조나 관리방법은 환경 등의 상황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처한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두산백과』에서 재구성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인문계(토, 오전) 문항세트는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1]은 분류·요약, [문제 2]는 비판·평가, [문제 3]은 적용·추론의 능력을 측정한다. 세 문항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총 6개의 제시문(가)~(바)을 배치하였고, 이 중 하나를 영어지문으로 구성하여 제시문의 다양성을 높이고 영어지문 이해 능력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문항마다 위에서 기술한 능력을 측정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여러 개의 제시문 또는 특정 제시문의 핵심어, 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분류, 연계하는 능력을 함께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 문항별 출제 의도는 아래와 같다.

[문제 1]은 제시문 (가)부터 (마)까지를 읽은 후, 리더십의 유형에 관한 제시문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시문들로부터 ‘(권한)위임형 리더십’과 ‘지시형 리더십’의 두 핵심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로 각 제시문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섯 개의 제시문을 각각 요약하게 함으로써 핵심어를 이용한 요지파악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문제 2]는 제시문 (바)와 제시문 (가)에 나타난 두 인물의 리더십 유형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끌어내고 (바)에서 나타난 리더십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평가해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기본적으로 두 제시문에 나타난 리더십은 서로 같은 유형의 ‘(권한)위임형 리더십’이지만 (바)의 리더십은 위임이 지나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부작용을 도출해내고 이 점이 (가)의 리더십과 다르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문제 3]에서는 [문제 1]에서 분류된 두 리더십 유형을 바탕으로, 본 문항과 함께 주어진 추가지문 ①에 적용하여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자 한다. 추가지문 ①의 핵심적인 내용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리더십의 유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지문 ②를 제시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이 적절히, 그리고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정답 작성이 가능하다. 첫째, [문제 1]의 풀이과정에서 핵심어인 “(권한)위임형 리더십”과 “지시형 리더십”의 대립적인 분류, 둘째, 추가지문에서 조직의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발견, 셋째, 여러 제시문에서 어떤 형태의 리더십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여 해당 지문 ①의 방향성을 추론하는 것 등이다. 수험자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적절히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러한 추론의 진행을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영어 제시문 (마)의 번역문]

교세라(Kyocera) 그룹은 일본과 해외에서 전기전자, 자동차, 의료장비의 부품은 물론 반도체와 복사기 등도 생산하는 주식회사이다. 지난해 매출은 15조원을 기록하였다. 이 기업의 명예 회장인 이나모리 가즈오(Kazuo Inamori) 회장은 일본에서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다. 그는 “기업경영은 노하우나 기술개발로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직원의 행복 증진과 같은 인간중심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나모리 회장은 자신의 권한을 임직원에게 위임함으로써 임직원들이 중요한 경영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진정한 참여경영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자율적 분위기에서, 임직원들은 더 높은 효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쓰고, 일단 쓰면 의심하지 말라”는 옛 성인의 말씀을 다시 새겨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채점 기준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권한)위임형 리더십’과 ‘지시형 리더십’이 언급되어야 함. • (가)~(마)의 다섯 개 제시문들이 ‘(권한)위임형 리더십’과 ‘지시형 리더십’이란 기준에 맞춰 분류되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 • 위 과정들이 적절한 어휘선택과 논리적인 구성을 통해 가독성 있게 서술되어야 함. 	210점
문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키피오와 정치인 A 모두 ‘(권한)위임형 리더십’임이 언급되어야 함. • 스키피오는 권한 위임을 넘어 방임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음이 언급되어야 함. • 정치인 A는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책임 소재 및 상황에 따라 질책을 분명히 하여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였음이 언급되어야 함. • 스키피오의 리더십이 적절치 않았으므로 평가되어야 함. • 위 과정들이 적절한 어휘선택과 논리적인 구성을 통해 가독성 있게 서술되어야 함. 	210점
문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1]의 풀이과정에서 논의되었을 대립적인 개념인 ‘(권한)위임형 리더십’과 ‘지시형 리더십’이 언급되어야 함. • 추가로 제시된 [문제 3] ①에 나타난 리더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함. • [문제 3] ②의 ‘상황적 리더십’에 대한 이해와 제시문들의 예시를 바탕으로 ①의 상황 변화에 따른 리더십 변화의 필요성과, 변화된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의 유형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함. • 위 과정들이 적절한 어휘선택과 논리적인 구성을 통해 가독성 있게 서술되어야 함. 	280점

[문제 1]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섯 개의 제시문을 ‘(권한)위임형 리더십’과 ‘지시형 리더십’의 두 유형으로 나누되, 제시문 (가), (다), (마)를 전자의 입장으로, 제시문 (나), (라)를 후자의 입장으로 기술한 경우 각 제시문의 요약에 ‘권한 부여, 결과 책임(제시문 (가))’, ‘적재적소 배치, 권한위임, 경청(제시문 (다))’, ‘권한위임, 의사결정, 자율성(제시문 (마))’, ‘자신의견 중심, 업무목표와 방법 등 세부사항 제시·관리(제시문 (나))’, ‘부하직원 의견 묵살, 지시중심(제시문 (라))’ 등의 핵심어를 포함하여 기술한 경우 문장의 표현이 매끄러운 경우 (예: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문장의 연결과 구성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경우 (예: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한 연결) 주어진 자수(400자)±10%의 오차 이내로 작성한 경우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A+의 조건이 대체로 충족되나 핵심어 대신 유사어(예: 민주형 리더십과 권위적/독재형 리더십)를 사용한 경우 -문장의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못한 경우 -문장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경우 -적절한 어휘 사용의 실수가 드물게 나타난 경우 -실수로 인한 문법 오류 등이 드물게 나타난 경우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권한)위임형 리더십’과 ‘지시형 리더십’이 발현된 방식에 대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 각 제시문의 요약이 부실한 경우 A0의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휘 사용의 실수가 여러 번 나타난 경우 -특정한 문법 오류가 여러 번 나타난 경우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여러 번 나타난 경우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권한)위임형 리더십’과 ‘지시형 리더십’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하고, 제시문들의 유형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 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B+의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는 경우 -B+의 감점 요인 중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난 경우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중 일부만을 요약하거나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지 못한 경우 위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 2]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키피오와 정치인 A 모두 부하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권한)위임형 리더십’을 발휘한 공통점이 있음을 언급한 경우 정치인 A는 스키피오와 달리 권한 위임과 동시에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경우에 따라 질책 혹은 직접 문제 해결에 뛰어든것을 기술한 경우 스키피오의 경우 방임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됨을 기술한 경우 결과적으로 스키피오의 리더십이 군대를 통솔함에 있어 적합지 않다는 평가가 포함된 경우 문장의 표현이 매끄러운 경우 (예: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문장의 연결과 구성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경우 (예: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한 연결) 주어진 자수(500자)±10%의 오차 이내로 작성한 경우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키피오와 정치인 A의 리더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기술하였으나, 스키피오의 리더십이 적절치 못했음을 모호하게 지적한 경우 A+의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장의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못한 경우 -문장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경우 -적절한 어휘 사용의 실수가 드물게 나타난 경우 -실수로 인한 문법 오류 등이 드물게 나타난 경우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키피오의 리더십이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하고, 스키피오와 정치인 A 모두 ‘(권한)위임형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공통점으로 언급하였으나, 차이점에 대한 서술이 미흡한 경우 스키피오의 리더십이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하고, 스키피오의 리더십과 정치인 A의 리더십이 어떻게 대비되는 지에 대한 서술은 되어 있으나, 공통점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휘 사용의 실수가 여러 번 나타난 경우 -특정한 문법 오류가 여러 번 나타난 경우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여러 번 나타난 경우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키피오에 대한 평가가 모호하고, 동시에 스키피오와 정치인 A의 리더십의 공통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두 리더십의 차이도 분명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B+의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는 경우 -B+의 감점 요인 중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난 경우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어의 일부를 사용하였으나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 위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 3]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1]의 두 입장을 ‘(권한)위임형 리더십’과 ‘지시형 리더십’의 핵심어를 사용하여 제시한 경우 • [문제 3] ①의 초기 성장 동력이 된 ‘(권한)위임형 리더십’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경우 • [문제 3] ②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다르다는 내용 또는 ‘상황적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경우 • [문제 3] ①의 상황 변화에 따른 ‘(권한)위임형 리더십’의 한계와 리더십의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문제 3] ①에 필요한 리더십이 초기 ‘(권한)위임형 리더십’에서 ‘지시형 리더십’으로 변화했다는 결론이 추론된 경우 •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예시가 주어진 경우 (예: 제프 베조스의 예시 등) • 문장의 표현이 매끄러움 (예: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 문장의 연결과 구성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임 (예: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한 연결) • 주어진 자수(600자)±10%의 오차 이내로 작성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 핵심어를 파악하였지만 핵심어에 근접하는 표현(예: 민주형 리더십과 권위적/독재형 리더십)을 사용한 경우 - 문장의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못한 경우 - 문장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경우 - 적절한 예시가 부족한 경우 - 적절한 어휘 사용의 실수가 드물게 나타난 경우 - 실수로 인한 문법 오류 등이 드물게 나타난 경우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 핵심어와 요지를 파악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리더십에 대한 추론에는 미흡한 경우 - [문제 3] 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에 대한 추론에는 미흡한 경우 - 적절한 추론을 하였지만 핵심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예시가 없고, 문장의 표현이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 - 어휘 사용의 실수가 여러 번 나타난 경우 - 특정한 문법 오류가 여러 번 나타난 경우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 B+의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된 경우 - B+의 감점 요인 중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난 경우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어의 일부를 사용하였으나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 • 위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 토요일 오후(인문계)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승만 정권 때의 일이다. 펜클럽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분들을 모시고 조그마한 환영회를 갖게 된 장소에서 각국의 언론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끝에 모 여류시인한테 나는 “한국에 언론자유가 있다고 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여자 허, 웃으면서 “이만하면 있다고 볼 수 있지요”하는 태연스러운 대답에 나는 내심 어찌 분개를 하였던지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려도 그 말만은 3,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시를 쓰는 사람, 문학을 하는 사람의 처지로서는 ‘이만하면’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적어도 언론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란 중간사(中間辭)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중략>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달라져야 할 것인가부터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할 것인가? 언론자유다. 1에도 언론자유요, 2에도 언론자유요, 3에도 언론자유다. 창작의 자유는 백 퍼센트의 언론자유가 없이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창작에 있어서는 1퍼센트가 결한 언론자유는 언론자유가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 『고등학교 문학』

(나)

2011년 시행된 섯다운제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섯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입법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섯다운제 적용대상 학생들의 94.4%가 섯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을 통해 게임 규제 시간에도 게임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즉, 섯다운제는 긍정적인 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의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

섯다운제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소년의 자율성을 해친다. 이 제도는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을 국가가 관리하려는 통제이며, 청소년의 문화적 섯택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게임의 산업적, 문화적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섯다운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인터넷 게임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취미를 살리고자 하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및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므로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에도 반한다.

- 박미경 외, 「섯다운제의 효과성 평가」, 『국정관리연구』 외에서 재구성

(다)

스모그(smog)의 원인이 자동차의 배기가스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동차 오염 물질의 배출 농도 기준을 설정하고 ‘자동차 오염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다. 그 후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양을 규제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법규의 시행으로 오염기준을 초과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 소유자들은 자가 부담으로 차량을 수리하거나

차량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또한, 자동차 생산 업체들은 배기가스 감소를 위해 배기가스 정화 장치, 고효율 엔진, 신소재 등의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 법규의 도입으로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게는 10분의 1, 많게는 50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배기가스 배출 규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에서 재구성

(라)

나는 이 책에서 자유에 관한 아주 간단명료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타인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뿐이다. 이 경우에만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행위자 자신의 물리적 또는 도덕적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간섭하는 것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선한 목적에서라면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그 사람을 설득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면 간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강제하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을 억지로라도 막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고 말 것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결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 고전』

(마)

주인이 따로 없는 공유지가 있다. 그곳에서 자란 풀은 질이 좋아서 아침마다 여러 목동이 양 떼를 몰고 와 풀을 뜯게 한다. 저녁이 되면 목동들은 다시 양 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목동 하나가 몇 마리의 양을 더 사들여 초지에 풀어 놓았다. 양들은 게걸스럽게 풀을 뜯어 먹기 시작하였다. 이를 본 이웃들도 더 많은 양과 소까지 사들여 초지에 풀어 놓아 공유지에는 점점 더 많은 양과 소들이 들어차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자 질 좋고 풍성한 초지는 점점 사라지고, 마침내 황폐화되고 말았다. 공유지는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이러한 공간은 급속히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적절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재구성

(바)

The question of fairness in the non-proctored exam should not be overlooked due mainly to the concern that test-takers may be able to receive outside help.

Researchers wanted to see how students performed on proctored* and non-proctored exams in psychology classes at Washington State University during the four semesters from spring 2015 to spring 2016. The result of the study agrees with the previous research showing that students perform better when an exam is not proctored. A careful investigation confirms that cheating is obviously one explanation for this behavior. In other words, while students are taking their exam without the vigilant** eye of a proctor, they have used notes, Internet sources, other classmates, and/or their textbook despite instructions not to do so.

* proctor: 시험을 감독하다 / ** vigilant: 바짝 경계하는
- Daffin & Jones, 『Comparing student performance on proctored and non-proctored exams in online psychology courses』에서 재구성

[문제 1]

(가)~(마)의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문제 2]

(바)에서 발생한 문제를 기술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문제1]의 두 입장을 평가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제 3]

아래 ①의 상황을 (라)의 입장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뉴욕시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 방안을 (라)와 아래 ②를 참고하여 제시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① 뉴욕시는 시민의 비만 예방 및 탈출을 위해 관내 식당, 영화관, 그리고 노점상들에서 대용량 탄산음료와 당분첨가음료의 판매 및 470ml가 넘는 탄산 음료수 용기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 정책에 대해 한 신문사는 뉴욕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만평을 게재했다.



- 미국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② 최근 영국 리즈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속도위반 운전자들에게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시행하는 ‘영국 과속 인식 교육과정’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벌점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속도위반 재범률을 줄이는 데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수강한 속도위반 운전자들의 경우 6개월 이내 재범률이 최대 23%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고, 3년 후의 재범률은 18%까지 감소했다. 제한속도 준수가 교통사고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연구진은 이 교육과정이 안전한 주행 습관을 장려하고 간접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결론지었다.

- European Transport Safety Council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인문계(토, 오후) 문항세트는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1]은 분류·요약, [문제 2]는 비판·평가, [문제 3]은 적용·추론의 능력을 측정한다. 세 문항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총 6개의 제시문 (가)~(바)를 배치하였고, 이 중 하나를 영어지문으로 구성하여 제시문의 다양성을 높이고 영어지문 이해 능력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문항마다 위에서 기술한 능력의 측정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여러 개의 제시문 또는 특정 제시문의 핵심어, 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분류, 연계하는 능력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 문항별 출제 의도는 아래와 같다.

[문제 1]은 제시문 (가)부터 (마)까지 읽은 후, 개인의 자유 보장의 중요성 또는 이에 대한 국가/사회의 규제라는 입장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시문들로부터 ‘자유/자율’과 ‘규제/간섭/통제’라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이 키워드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로 각 제시문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섯 개의 제시문을 각각 요약하게 함으로써 핵심어를 이용한 요지파악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문제 2]는 제시문 (바)에서 나타난 문제점, 즉 “자유/자율의 남용”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여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1]에 나타난 두 입장인 자유와 규제에 대한 입장을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자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지나친 자유의 부작용이나 자유의 남용,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을 여러 제시문의 입장을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3]에서는 [문제 1]에서 분류된 두 입장(자유와 규제)을 본 문항과 함께 주어진 추가지문 ①에 적용하여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자 하였다. 추가지문 ①의 핵심적인 내용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유’를 추구할 권리를 뉴욕시민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유에 대한 요구를 보장하면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뉴욕시의 방안을 추가지문 ②와 제시문 (라)를 활용하여 기술하기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이 적절히, 그리고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문제 1]의 풀이 과정에서 핵심어인 ‘자유/자율의 보장’과 ‘규제/간섭/통제’의 대립적인 분류, 둘째, 개인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제시문 (라)의 관점을 적용하여 뉴욕시의 정책 비판, 셋째, 개인의 자유의 극대화를 주장하는 제시문 (라)와 규제 대신 교육과 홍보 등 대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추가지문 ②를 조합하여 적절한 대처방법의 도출, 넷째, 여러 제시문에서 찾은 구체적인 예시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 등이다. 수험자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적절히 연계할 수 있는 지, 이러한 추론의 진행을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영어 제시문 (바)의 번역문]

무감독 시험은 응시자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2015년 봄 학기부터 2016년 봄 학기까지 4학기 동안 워싱턴주립대학교 심리학 수업 수강생들이 감독관이 있는 시험과 없는 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이 분석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시험이 무감독으로 치러진 경우 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설명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감독관의 감시가 없는 무감독 시험을 응시할 때에는 규칙을 어기고 강의 자료나 인터넷 검색을 참고하거나 다른 수강생들과 협의하거나 교과서를 참고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채점 기준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자유/자율’과 ‘규제/간섭/통제’라는 핵심어가 언급되어야 함. • 다섯 개의 제시문들이 ‘자유/자율’과 ‘규제/간섭/통제’라는 기준에 맞춰 분류되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 	210점
문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의 영어지문을 적절히 요약: 무감독 시험의 사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바)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1]의 두 입장(자유/자율의 보장과 사회적 규제)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함. • 무감독 시험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무조건적 자유의 보장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함. •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언급되어야 함. 	210점
문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산음료 규제에 대한 뉴욕시의 입장과 반대하는 시민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함. • (라)의 관점에서 뉴욕시의 탄산음료 규제는 잘못된 것임이 언급되어야 함. • 대처방안으로 (라)의 관점에서 충고, 토론, 설득의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이 언급되어야 함. • 대처방안으로 ②의 관점에서 교육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이 언급되어야 함. 	280점

[문제 1]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섯 개의 제시문을 ‘자유/자율’과 ‘규제/간섭/통제’의 두 유형으로 나누되, 제시문 (가), (나), (라)를 전자의 입장으로, 제시문 (다), (마)를 후자의 입장으로 기술한 경우 각 제시문의 요약에 ‘창작의 자유, 언론자유(제시문 (가))’, ‘미미한 효과, 부작용, 위헌, 지나친 간섭(제시문 (나))’, ‘타인에 대한 해악’, 어떠한 경우도 개인의 자유 규제불가(제시문 (라))’, ‘대기환경 개선, 배기가스 배출규제 기준강화(제시문 (다))’, ‘자유 극대화, 공유지 황폐화, 적절한 규제(제시문 (마))’ 등의 핵심어를 포함하여 기술한 경우 문장의 표현이 매끄러운 경우 (예: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문장의 연결과 구성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경우 (예: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한 연결) 주어진 자수(400자)±10%의 오차 이내로 작성한 경우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A+의 조건이 대체로 충족되나 핵심어 대신 유사어를 사용한 경우 문장의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못한 경우 -문장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경우 -적절한 어휘 사용의 실수가 드물게 나타난 경우 -실수로 인한 문법 오류 등이 드물게 나타난 경우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주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자유/자율’과 ‘규제/간섭/통제’가 발현된 방식에 대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 각 제시문의 요약이 부실한 경우 A0의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의 실수가 여러 번 나타난 경우 -특정한 문법 오류가 여러 번 나타난 경우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여러 번 나타난 경우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주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자유/자율’과 ‘규제/간섭/통제’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하고, 제시문들의 주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예: 제시문들 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B+의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는 경우 -B+의 감점 요인 중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난 경우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중 일부만을 요약하거나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지 못한 경우 위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 2]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의 영어지문에 대한 적절한 요약이 포함된 경우 (바)의 영어지문을 통해 무조건적 자유의 보장은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문제 1]의 두 입장을 ‘자유/자율’과 ‘규제/간섭/통제’의 핵심어를 사용하여 평가한 경우 (바)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조건적 자유의 보장에 대한 비판과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경우 문장의 표현이 매끄러운 경우 (예: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문장의 연결과 구성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경우 (예: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한 연결) 주어진 자수(500자)±10%의 오차 이내로 작성한 경우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문장의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못한 경우 -문장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경우 -적절한 어휘 사용의 실수가 드물게 나타난 경우 -실수로 인한 문법 오류 등이 드물게 나타난 경우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A0의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핵심어와 요지를 파악하였으나, 무조건적 자유의 보장에 대한 비판이 미흡한 경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미흡한 경우 -적절한 평가를 하였지만 핵심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경우 -문장의 표현이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 -어휘 사용의 실수가 여러 번 나타난 경우 -특정한 문법 오류가 여러 번 나타난 경우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B+의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는 경우 -B+의 감점 요인 중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난 경우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어의 일부를 사용하였으나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 위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영어 지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 3]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산음료 규제에 대한 뉴욕시의 입장과 반대하는 시민의 입장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직접적이고 명백한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국가나 사회의 간섭을 반대하는 (라)의 관점에서 뉴욕시의 탄산음료 규제는 잘못된 것임이 설명된 경우 뉴욕시의 대처방안으로 (라)의 관점에서 충고, 토론, 설득의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다른 대처방안으로 ②의 관점에서 교육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이 서술된 경우 문장의 표현이 매끄러운 경우 (예: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문장의 연결과 구성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경우 (예: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한 연결) 주어진 자수(600자)±10%의 오차 이내로 작성한 경우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문장의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못한 경우 -문장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경우 -적절한 예시가 부족한 경우 -적절한 어휘 사용의 실수가 드물게 나타난 경우 -실수로 인한 문법 오류 등이 드물게 나타난 경우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산음료 규제에 대한 뉴욕시의 입장과 반대하는 시민의 입장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고, 타인에게 직접적이고 명백한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국가나 사회의 간섭을 반대하는 (라)의 관점에서 뉴욕시의 탄산음료 규제는 잘못된 것임이 설명되었으나, (라)와 ②의 관점 중 하나만을 이용해서 대안을 제시한 경우 또는 대안 제시가 미흡한 경우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적절한 추론을 하였지만 핵심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예시가 없고, 문장의 표현이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 -어휘 사용의 실수가 여러 번 나타난 경우 -특정한 문법 오류가 여러 번 나타난 경우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욕시의 탄산음료 규제에 대한 두 입장이 기술되어 있으나, (라)의 입장을 적절히 파악하여 문제에서 적용하지 못한 경우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B+의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된 경우 -B+의 감점 요인 중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난 경우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어의 일부를 사용하였으나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 위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 일요일 오전(사회계)

문항 및 제시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김매는 주인이 늙(일꾼) 아흔아홉 몫을 한다.”라는 속담은 주인 한 명이 일꾼 아흔아홉 명만큼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인은 열심히 일하면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지만, 일꾼은 일의 성과가 자신의 것이 되지 않기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시간만 때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속담은 주인 의식을 강조한 것이지만, 이로부터 경제적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경제 원리도 도출할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이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 파격적인 성과급을 주는 이유를 이 속담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한 만큼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회사도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체계를 인센티브 중심의 연봉제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A 회사는 매출과 순이익을 크게 늘렸지만, 연봉제 도입 초기에는 급여 격차의 심화로 인해 성과가 낮은 직원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A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이 더욱 늘어나 성과 중심 연봉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원 복지를 확충할 여력이 많아졌다. 그 결과 A 회사가 직원의 기본급을 올리고, 자기개발비 지원이나 직원식당 개선 등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자 성과가 낮은 직원의 불만도 크게 줄어들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재구성

(나)

경제 개발 초기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성장 거점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투자하면 경제적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자본을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발 대상 지역과 소외 지역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최근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균형 발전을 통해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통한 분산형 지역 개발 방안이 그 사례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해당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을 유치해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산업, 연구, 관광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뜻한다. 전국 면적의 약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밀집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도권 과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개발 권역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균형 발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고등학교 한국지리』 재구성

(다)



(라)

중남미의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최근 사실상 마비됐다. ‘21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운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2013년에 사망한 뒤 베네수엘라 경제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었다.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이 100만%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난에 더해 정치 불안이 심화되자 최근 3년여 동안 나라를 탈출한 국민이 10명 중 1명에 달해 ‘베네수엘라 엑소더스’라는 말도 생겼다. 차베스는 1999년 취임한 이래 14년간 석유, 천연자원, 통신과 같은 필수 서비스는 물론이고 슈퍼마켓 체인까지 국유화했다. ‘석유 사회주의’라고까지 불린 차베스 정권은 석유에서 얻은 이익을 대중들에게 돌리는 과도한 평등주의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차베스 취임 초기에 국내총생산 대비 13% 수준이던 사회적 지출 비용이 2006년에는 40%까지 늘어났다. 차베스의 정책은 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재임 중반까지는 유지 가능했으나, 그 이후 유가가 떨어지며 점차 한계에 직면했다. 석유 산업에만 의존하는 기형적 경제 구조와 지나친 형평성의 강조가 국가 경제 몰락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라 밖으로 떠나야 하는 비극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마)

우유가 죄다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얼마 안 가서 밝혀지게 되었다. 우유는 매일 돼지들이 먹는 사료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과수원에서는 이른 사과가 익기 시작했고 바람에 떨어진 사과 알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다. 다른 동물들은 그 떨어진 사과 알들이 물론 평등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사과 알들을 모두 모아다 마구간의 돼지들에게 갖다 줘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 명령에 몇몇 동물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소용없었다. (중략)
 “돼지들이 우유와 사과를 가져가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유와 사과에는 돼지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동물들,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일입니다. 우리 돼지들은 머리 쓰는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의 경영과 조직은 전적으로 우리 돼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여러분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돼지들이 우유를 마시고 사과를 먹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농장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입니다.” (중략)
 일이 그런 식으로 설명되고 보니 힘없는 동물들로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농장 전체를 위해 돼지들이 우선 건강해야 한다는 말은 그럴싸하게 들렸다. 그렇게 해서 우유며 바람에 떨어진 사과(나중에는 익은 사과들까지도)를 모두 돼지들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데 아무 군말 없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 조지 오웰, 『동물 동장』, 『고등학교 고전』

(바)

선생님은 부유세 도입을 예시로 ‘정책 결정의 합리적 기준’에 관한 토론 수업을 진행한 다음,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부유세 도입: 찬성 vs. 반대

찬성	반대
<p>부유세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 2. 양극화는 다양한 사회 갈등 유발 3. 갈등 방지로 사회 통합 	<p>부유세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들의 부담 증가로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 2. 개인의 근로와 저축 의욕 저하 3. 경제 악화로 서민 생활에 장기적 어려움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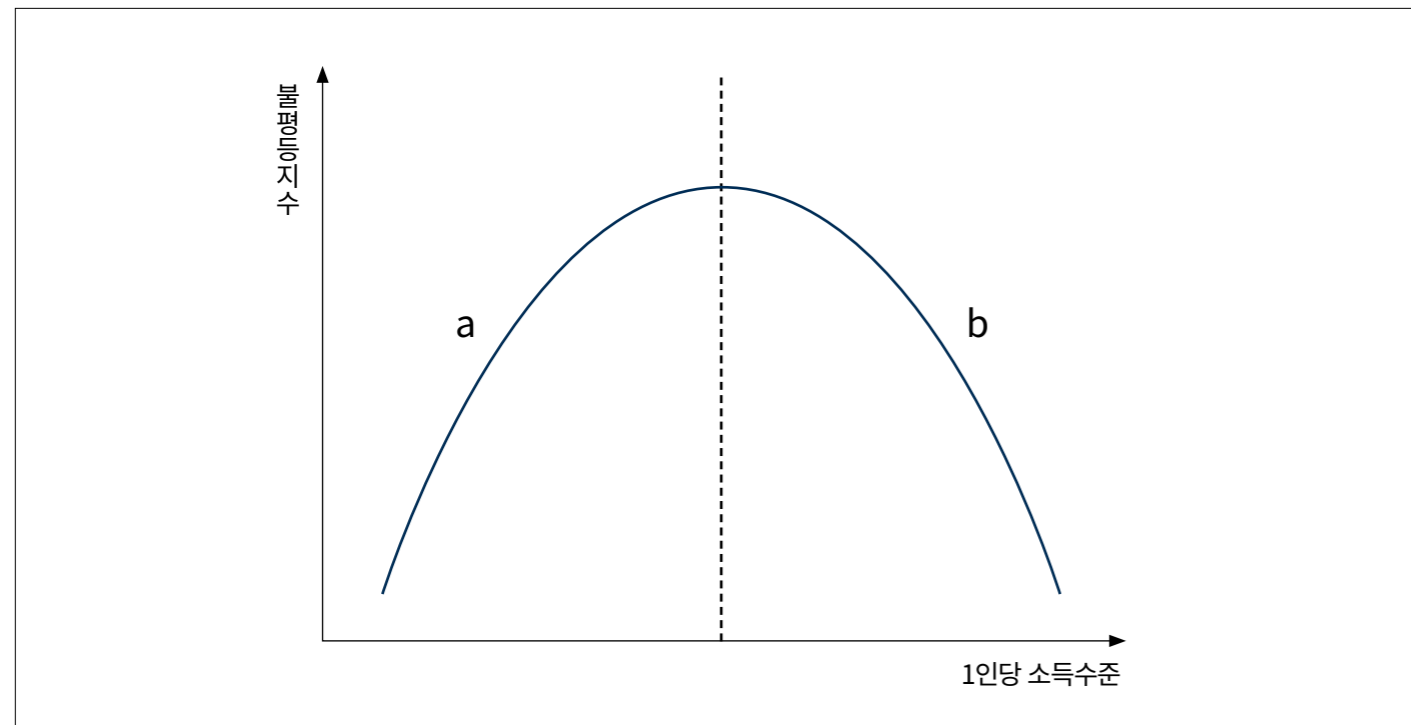
선생님: 두 학생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성장과 복지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모두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만을 택하기보다는 두 가지 기준을 어떻게 잘 통합하고 절충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국가나 공동체 전체의 발전, 미래 세대의 이익,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재구성

[문제 1]
 (가)~(마)에는 상이한 의사결정 기준이 작용하고 있다. (가)~(마)를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문제 2]
 (라)와 (마)에 나타난 부정적 결과에 대해 (바)의 ㉠ 중 두 가지씩을 선택하여 각각 평가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제 3]
 고전 경제학의 한 가설에 따르면 1인당 소득수준과 불평등지수의 관계는 다음 그래프와 같다. 다음 그래프를 해석하고, 구간 a에서 b로의 변화 요인을 (가)를 활용하여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사회계열 오전시험은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1]은 분류·요약, [문제 2]는 비판·평가, [문제 3]은 적용·추론의 능력을 측정한다. 논술시험 학생들의 지원전공 분야를 감안하여 사회적 현상을 판단하는 의사결정의 기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제 1]과 [문제 2]는 제시문에 대한 분류·요약과 비판·평가를 묻는 질문형식이다. [문제 3]은 그래프에 대한 적용·추론을 제시문의 내용과 연관지어 서술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마다 개별적인 측정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제시문의 핵심어, 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분류, 연계하는 능력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 문항별 출제 의도는 아래와 같다.

[문제 1]은 제시문 (가)부터 (마)까지를 읽은 후, 의사결정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제시문들을 구분하고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시문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이란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을 읽어낼 수 있는지, 나아가 (가), (다), (마)는 효율성으로, (나), (라)는 형평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추가하여 (가), (나)는 긍정적, (다), (라), (마)는 부정적 현상임을 파악하는지 평가하였다. 또한 다섯 개의 제시문을 각각 요약하게 함으로써 핵심어를 이용한 요약 능력을 보고자 하였다.

[문제 2]는 제시문 (바)에 제시된 국가(공동체) 전체의 발전, 미래세대의 이익, 사회적 약자의 보호 3가지의 기준 중 2가지씩을 선택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이 작용하는 지문 중에서 부정적인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는 (라)와 (마)에 적용하여 논의하도록 하였다. (라)의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사례는 차베스의 집권이후 과도한 평등주의적 정책이 국가경제를 몰락시키고 젊은이들은 해외로 떠나야 하는 현상을 국가 전체의 발전과 미래세대의 이익의 관점에서 파악하는지 평가하였다. (마)의 동물농장 사례는 돼지들에 대한 사료의 불평등한 우선배분이 농장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정당화되면서 힘없는 동물들이 강요되는 현상을 포착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발전이 부정적인 의도로 남용되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제 3]은 소득수준과 불평등지수의 관계에 대한 쿠즈네츠(Kuznets)의 가설을 바탕으로 관련 그래프의 내용을 해석하고 제시문 (가)에 적용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문제는 그래프의 내용을 해석하고 제시문 (가)의 정보를 활용하여 그래프 b 구역의 변화를 추론하는 것이다. 그래프에서 x축의 국민소득은 효율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물로 효율성을 대변하며, y축의 불평등지수는 형평성을 나타낸다. 이때 a 구간에서는 1인당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상승하는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 그러나 a에서 b 구간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지난 후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불평등 정도가 감소하는 음의 형태가 나타난다. 변화의 요인을 (가)를 통해 추론해 볼 때, 효율성에 중심을 둔 인센티브 정책은 시행 초반에는 직원들 간에 불평등을 유발하지만, 재정이 확보됨에 따라 오히려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수험자가 그래프를 해석하고 제시문에 응용하여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출제의도이다.

채점 기준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결정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기준인 “효율성”과 “형평성”을 언급하고, 다섯 개의 제시문들이 효율성과 형평성이란 기준에 맞춰 분류되어야 함. 효율성과 형평성 기준으로 분류된 제시문들을 각각 긍정적, 부정적 범주로 추가 분류한 경우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 	210점
문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라)와 (마)에 나타난 부정적 결과가 무엇인지 언급해야 함. 제시문 (바)의 ㉠에 나타난 세 가지 기준 중 (라)의 부정적 결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발전’과 ‘미래 세대의 이익’을 선택했음을 밝혀야 함. 제시문 (바)의 ㉡에 나타난 세 가지 기준 중 (마)의 부정적 결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선택했음을 밝혀야 함. ㉠에서 선택한 두 가지 기준을 활용하여 (라)와 (마)의 부정적 결과와 연관된 이유를 각각 설명해야 함. 	210점
문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래프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경제 성장이 사회적 형평성에 기여한 다는 것을 파악 각 구간별 그래프의 해석 (가)의 요약을 통해 효율적 경제성장을 통한 재정적 안정성이 사회적 형평성에 기여 한다는 것을 파악 위 과정들이 적절한 어휘선택과 논리적인 구성을 통해 가독성 있게 서술되어야 함. 	280점

[문제 1]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섯 개의 제시문을 ‘효율성’과 ‘형평성’이란 두 입장으로 구분하고, (가), (다), (마)는 전자로, (나), (라)는 후자로 구분한 경우 이와 더불어 각 제시문의 요약에 ‘성과’ (가), ‘균형 발전’ (나), ‘효과’ (다), 포퓰리즘, 평등주의 (라), 돼지에 대한 우선적인 자원배분 (마) 등의 핵심어를 포함하여 기술한 경우 [가점 요인] A0를 충족하고 다섯 개의 제시문을 ‘효율성’과 ‘형평성’이란 두 입장으로 구분하되, 긍정적·부정적 범주의 추가 구분을 한 경우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핵심어(효율성, 형평성) 대신 유사어를 사용한 경우 -문장구성 등이 매끄럽지 못함. -문장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실수로 인한 문법 오류 등이 드물게 나타남.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효율성’과 ‘형평성’이란 방식에 대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 -각 제시문의 요약이 부실한 경우 -어휘 사용의 실수가 가끔 나타남. -특정 문법 오류가 여러 번 나타남.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가끔 나타남.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제시문을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효율성’과 ‘형평성’의 구별이 완벽하지 못하고 제시문들의 입장 분류 및 요약이 부실한 경우(예: 제시문들 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B+의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됨. -B+ 감점 요인 중 1 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중 일부만을 요약하거나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지 못한 경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했지만 답과 거리가 멀고 글자 수를 현저히 채우지 못한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문제 2]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라)의 부정적 결과를 밝힌 후, (바)의 ㉠ 중 ‘국가 전체의 발전’과 ‘미래 세대의 이익’을 택한 후 (라)의 부정적 결과와 연관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함. • 제시문 (마)의 부정적 결과를 밝힌 후, (바)의 ㉠ 중 ‘공동체 전체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택한 후 (마)의 부정적 결과와 연관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함. • 제시문 (라)와 (마)의 내용 중 연관성 높은 요소를 잘 활용하여 충분히 설명함.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 핵심어를 파악하였으나 핵심어에 근접한 표현 사용 - 문장의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못함. - 문장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 실수로 인한 문법 오류 등이 드물게 나타남.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 제시문 (바)의 ㉠ 중 (라)를 ‘국가 전체의 발전’과 ‘미래 세대의 이익’, (마)를 ‘공동체 전체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로 정확하게 연결하지 못함. - 두 제시문 중 한 쪽만 올바르게 연결함. - 제시문 (라) 또는 (마)의 부정적 결과를 밝히지 못하였거나, 제시문 (라)와 (마)의 내용 중 연관성 있는 요소의 활용이 긴밀하지 않음. - 예시가 없고, 문장의 표현이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음. - 어휘 사용의 실수가 가끔 나타남. -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가끔 나타남.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 제시문 (바)의 ㉠ 중 (라)를 ‘국가 전체의 발전’과 ‘미래 세대의 이익’, (마)를 ‘공동체 전체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로 양 쪽 모두 정확하게 연결하지 못함. - 제시문 (라) 또는 (마)의 부정적 결과를 밝히지 못하였거나, 제시문 (라)와 (마)의 내용 중 연관성 있는 요소의 활용이 긴밀하지 않음. - B+의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됨. - B+의 감점 요인 중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바)의 ㉠에 나온 기준을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함. • 제시문 (라)와 (마)의 부정적 결과와 연결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음.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바)의 ㉠에 나온 기준을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함. • 제시문 (라)와 (마)의 부정적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음. • 제시문 (라)와 (마)의 부정적 결과와 연결된 내용이 부정확함. • 글자 수를 현저히 채우지 못한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문제 3]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프 해석에서 구간 a에서는 x축과 y축이 정의 관계, b에서는 반의 관계라는 것을 파악 (국민소득(효율성)이 낮을 때는 형평성과 상충관계, 국민소득(효율성)이 일정수준 이상일 때는 형평성과 보완 관계) • 그래프 해석에서 국민소득(효율성)이 형평성에 기여 한다는 것을 파악 • 제시문 (가)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재정적 안정이 형평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요약 • 제시문 (가)를 근거로 그래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효율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추론 (또는 그래프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이 효율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추론) • 제시문 (가)를 근거로 경제성장을 통한 재정적 안정이 사회적 평등에 기여한다는 것을 추론 • 문장의 연결과 구성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임 (예: 적절한 접속어를 사용한 연결) • 문장의 표현이 매끄러움 (예: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 핵심어를 파악하였지만 핵심어에 근접하는 표현 사용 - 문장의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못함. - 문장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 적절한 어휘 사용의 실수가 드물게 나타남. - 실수로 인한 문법 오류 등이 드물게 나타남.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 핵심어 파악에서 x축이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추론하지 못함. - 재정적 분배가 형평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추론하지 못함. - 어휘 사용의 실수가 가끔 나타남. - 특정한 문법 오류가 여러 번 나타남. -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가끔 나타남.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 B+의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됨. - B+의 감점 요인 중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프의 변화요인을 설명하지 못한 경우 • 핵심어의 일부를 사용하였으나 논리적인 추론이 결여됨.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함.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춤.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음.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 일요일 오후(사회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최근 이삼 년 간 무서운 속도로 진행된 BTS의 세계적 확장은 종전의 K팝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BTS가 일으킨 글로벌 열풍은 기존 K팝 팀과 달리 예측 불가능하게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BTS 신드롬의 진원지는 국내나 아시아가 아닌 유럽과 남미였고, 그들의 노래 ‘쩨어’에 관한 유튜브 리액션의 폭발적 반응으로 결집된 팬들의 반응은 인터넷을 매개로 그야말로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BTS는 지리적, 물리적 제약을 넘어 공식 페이스북 팔로어 76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어 1,413만 명, 유튜브 구독자 1,27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아미’라고 불리는 BTS의 글로벌 팬들은 SNS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음악을 국적과 인종의 편견 없이 받아들여 ‘쿨’하게 즐길 줄 안다. K팝의 인기가 BTS에 이르러 세계 차트를 휩쓰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함에 따라, 오늘날 글로벌 팬들은 일상 대화에서 K팝 가사 속 한국어 단어와 구절을 스스럼없이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BTS의 유례없는 글로벌 확장이 세계 팬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며, 대중문화 차원을 넘어 한국어 세계화의 초석을 놓고 있는 것이다.

- 〈경향신문〉 칼럼 재구성

(나)

겨울이 오니 땀나뭇가 있을 리 만무하다. 냉돌에 변변치도 못한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으니, 사뭇 뼈가 저려 올라오고 다리팔 마디에서 오도독 소리가 나도록 온몸이 굳어 오는 판에, 사지를 웅크릴 대로 웅크리고 안간힘을 쫓고 쓰면서 이를 악물다 못해 박박 갈면서 하는 말이,

“요놈, 요 쾌심한 추위란 놈 같으니, 네가 지금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마는, 어디 내년 봄에 두고 보자.”

하고 버르더라는 이야기가 전하지마는, 이것이 옛날 남산골 ‘딸깍발이’의 성격을 단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다. 사실로는 졌지마는 마음으로는 안 졌다는 앙큼한 자존심, 꼬장꼬장한 고지식,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결불을 안 찢다는 지조, 이 몇 가지가 그들의 생활신조였다.

우리나라를 소중화(小中華)*로 만든 것은 어찌지 않은 관료들의 죄요, 그들의 허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너무 강직하였다. (중략) 임진왜란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의 두목들도 다 이 ‘딸깍발이’ 기백의 구현인 것이 의심 없다. 구한말에 단발령이 내려졌을 적에, 각지 유림들이 맹렬하게 반대 상서를 올려, “이 목은 잘릴지언정 이 머리는 깎을 수 없다.”

라고 부르짖고 거부한 일이 있었으니, 그 일 자체는 미혹하기 짝이 없었지만 죽음을 개의하지 않고 덤비는 그 의기야말로 본받을 직하지 않은 바도 아니다. 이와 같이 ‘딸깍발이’는 온통 못생긴 짓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훌륭한 점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 소중화(小中華):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를 중화로 자처하던 의식.

- 이희승, 「딸깍발이」, 『고등학교 문학』

(다)

‘새로마지’란 새로움과 마지막이 합성된 신조어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부터 노후의 마지막 생애까지 희망차고 행복하게’라는 국가의 인구 복지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 고

령 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을 발표했다.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는 출산율 회복을 통한 인구 구조 개선, 노인 일자리 확충 등의 내용이 있다. 이 발표를 들은 노인과 청년이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

청년: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크게 늘린대요.

노인: 그럼 나도 취업할 수 있겠구나.

청년: 노인 취업이 늘면 청년들의 세금 부담도 줄겠네요.

노인: 그래, 우리도 취업하면 세금도 내고, 의료 보험비도 내게 되겠지.

청년: 그러면 나라의 복지 재정 부담도 줄겠네요.



- 『고등학교 사회』재구성

(라)

‘코닥 모멘트’라는 말이 있다. 피사체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자 사진 찍기 가장 적합한 찰나를 뜻하는 속어다. 사진 언어의 대명사로도 불리었던 코닥은 한때 세계 필름 시장의 70%까지 석권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던 기업이다. 그러나 코닥은 몰락했다. 필름 산업은 디지털 카메라의 대량 보급으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어 2000년경에는 매출 규모가 1/10 이하로 떨어졌다. 2012년 코닥은 파산을 선언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하며 전설의 시대를 마감했다. 사실 코닥은 1975년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그렇지만 이후 코닥은 소비자들의 기호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서서히 이동하는 중대한 변화를 도외시켰다. 필름과 여타 인화 장비 등에서 큰 매출을 올리고 있던 코닥이 오랜 기간 이익을 보장해온 핵심 기술과 현재 수익에 집착해 기존 사업 모델을 강화하며, 시장의 변화를 거부한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인 디지털화를 수용하지 않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필름 시장의 확장만 추진했다.

(마)

최근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기업의 마케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기업들은 SNS를 통한 소셜 미디어 마케팅, 입소문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등의 새로운 홍보 기법을 적극 수용해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홍보 기법의 도입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A 자동차 회사는 페이스북에 자사의 자동차 브랜드 명을 3행시로 지어 올리고 ‘좋아요’를 많이 받은 3행시에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브랜드 충성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좋아요’를 더 많이 받기 위해 A사의 자동차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을 올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3행시는 A사의 자동차 품질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 결과 오히려 A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었다.

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B사는 길거리 곳곳에 현란한 조형물을 설치했다. 신작 애니메이션 판매에 새로운 홍보 기법인 바이럴 마케팅을 활용하기 위해 지하도와 다리에 불빛이 번쩍거리는 당구공을 설치한 것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조형물을 테러리스트의 폭발물이라고 오해해 고속도로를 몇 시간 동안 차단하고, 조형물 제작자를 체포했다. 이는 B사가 테러에 대한 위협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였다. 결국 B사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느라 큰 손해를 보았으며, 테러와 관련된 부정적 이미

지를 갖게 되었다.

*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입소문을 활용해 상품 정보를 바이러스처럼 확산시키는 마케팅 기법.

(바)



그림 1: 직파 모습 (농업박물관 전시 모형)



그림 2: 모내기 모습 (김홍도 풍속화)

조선 후기 농업의 새로운 흐름으로 모내기법(이앙법)이 널리 보급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논농사의 파종(播種) 방식은 크게 직파법과 모내기법으로 나뉜다. 직파법은 물을 댄 논에 볍씨를 직접 뿌려 수확할 때까지 재배하는 방법이고(그림 1), 모내기법은 모판에 볍씨를 뿌렸다가 벼 모가 일정 크기로 자라면 본 논에 옮겨 심는 방법이다(그림 2). 모내기법은 잡초를 제거하는 김매기 횡수를 줄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량도 크게 늘려 주었다. 또한 본 논에서는 5월까지 가을보리를 재배하는 것이 가능했기에 1년에 두 번 경작할 수 있었다.

종래 직파법을 시행하던 A 마을 농민들도 모내기를 하면 수확이 크게 늘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받아들여기로 했다. 모내기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모를 옮겨 심을 때 논에 집중적으로 물을 대야 했기 때문에 저수지나 보 등 수리 시설을 잘 갖추어야 했다. 또한 짧은 시간에 모내기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노동 조직을 갖추어야 했다. 그런데 A 마을은 이러한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A 마을 농민들은 번번이 제때 모내기를 하지 못했다. 직파법보다 더욱 생산적인 모내기법을 도입하려던 A 마을 농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A 마을 농민들은 모내기법을 잘 시행한다고 소문난 이웃 마을을 방문해 관련 기반 시설을 둘러보고, 사회경제적 여건도 조사했다. 마을로 돌아온 농민들은 대책 회의를 열어 마을 앞의 하천에 보를 쌓아 수리 시설을 갖추고, 공동 노동 조직인 두레를 활성화해 모내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 『고등학교 한국사』 재구성

[문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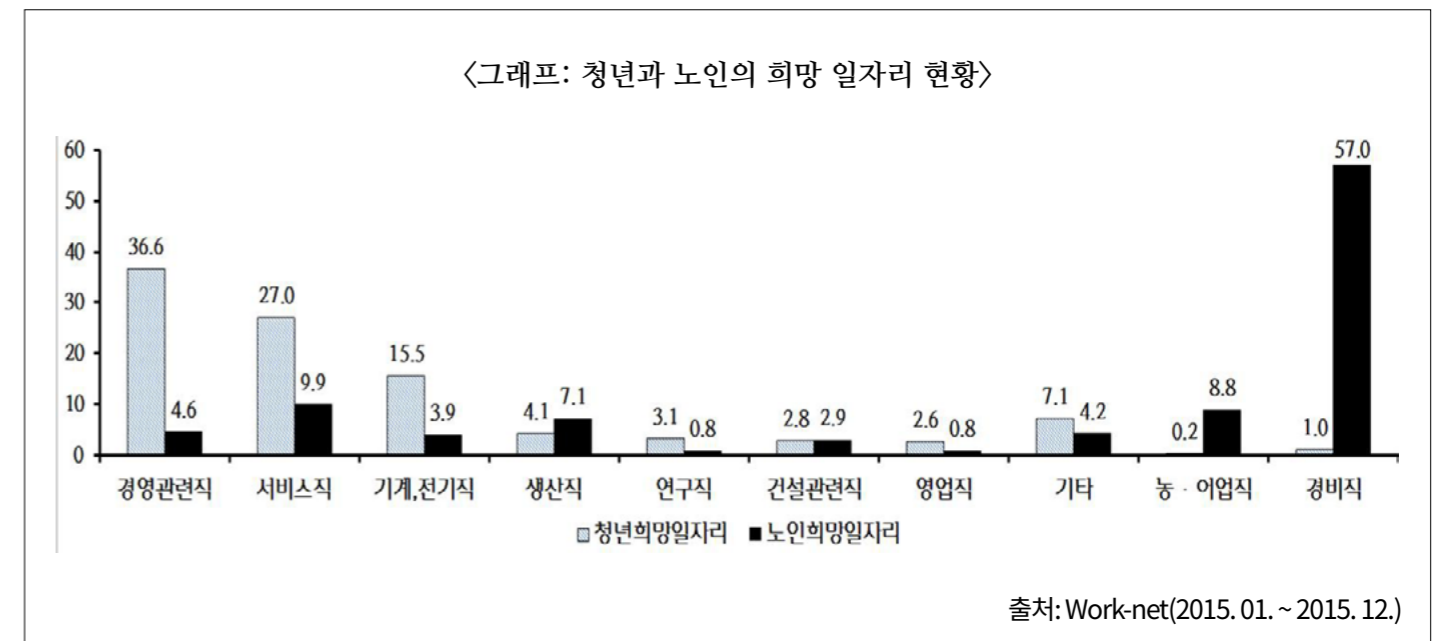
(가)~(마)는 새로운 것에 반응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가)~(마)를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문제 2]

(바)의 A 마을 사례를 활용하여 (라)와 (마)에 나타난 반응 방식을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제 3]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층의 일자리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B시는 노인층 일자리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지방 의회에 회부했다. 이에 청년층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음 그래프와 (다)를 바탕으로 지방 의회가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사회계열의 오후시험은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1]은 분류·요약, [문제 2]는 비판·평가, [문제 3]은 적용·추론의 능력을 측정한다. 논술시험 학생들의 지원전공 분야를 감안하여 경제 및 경영과 관련된 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변화에 대한 수용과 거부를 주제로 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제 1]과 [문제 2]는 제시문에 대한 분류·요약과 비판·평가를 묻는 질문이다. [문제 3]은 그래프에 대한 적용·추론을 제시문의 내용과 연관지어 서술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마다 개별적인 측정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제시문의 핵심어, 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분류, 연계하는 능력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 문항별 출제 의도는 아래와 같다.

[문제 1]은 제시문 (가)부터 (마)까지를 읽은 후, 새로움이라고 표현된 새로운 현상의 출현이나 변화에 대한 반응방식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요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시문에서 수용과 거부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을 읽어낼 수 있는지, 나아가 (가), (다), (마)는 수용으로, (나), (라)는 거부로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또한 BTS의 K팝 글로벌 확장,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두 회사의 새로운 광고기법, ‘딸깍발이’가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며 단발령을 거부하는 모습, 코닥의 디지털 시장변화 거부 등에 관련된 다섯 개의 제시문을 각각 요약하게 함으로써 핵심어를 이용한 요약 능력을 보고자 하였다.

[문제 2]는 이양법의 도입에 관한 (바)의 A 마을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에 대응하지 못한 (라)와 새로운 것에 반응하였으나 실패한 (마)의 대응방식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바)에서는 새로운 흐름인 모내기법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수리 시설이나 경제력, 노동 조직 등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결국 첫 해에 모내기를 하지 못했다. 이는 변화에 대응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공에 필요한 요인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라)에서 코닥은 새로움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여 실패한 사례이다. (마)에서 A사와 B사는 새로운 홍보 기법인 소셜 마케팅과 바이럴 마케팅을 적극 수용했으나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해 실패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마)는 (바)의 A 마을 사례와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문제 2]는 근거 지문인 (바)의 특징을 파악하고 주어진 비교 대상 사례와 비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제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문제 3]은 그래프를 해석하고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하면서 그래프 해석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추론하는 질문이다. 이러한 출제의도에 따라서 [문제 3]은 노인인구와 청년세대의 희망직종에 관한 통계자료를 해석하고 제시문 (다)에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확충을 가상의 B 시 지방의회에서 수용할지의 여부를 묻고 있다. 그래프에 따르면, 청년은 경영관련직, 서비스직, 기계전기직 순으로, 노인은 경비직, 서비스직, 농어업직 순으로 일자리를 찾는다. 이때 일자리 경합이 가장 높은 서비스직에서도 그 비율은 9.9%p에 불과하여 청년과 노인은 구직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를 통해, ‘새로마지’와 같은 노인 일자리 정책으로 노인 취업률이 늘어나면 노인층의 세금 및 의료 보험비 납부액이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복지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동시에 청년층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증가가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B 시의 지방 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의 타당성을 주어진 그래프 자료와 제시문의 정보를 통해서 추론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출제의 의도이다.

채점 기준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것에 반응하는 두 가지 상반된 유형인 “수용”과 “거부”가 언급되어야 함. • 다섯 개의 제시문들이 수용과 거부라는 기준에 맞춰 분류되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 	210점
문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의 A 마을 사례가 새로운 것을 수용했으나 부정적 결과를 낳은 것임을 명시해야 함. • (라)에서 코닥이 새로운 변화를 거부해 파산을 맞았음을 서술해야 함. • (마)에서 A 사와 B 사가 새로운 홍보 기법을 수용했으나 다른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서술해야 함. 	210점
문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프를 통해 청년과 노인 간에 일자리 경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여야 함. • (다)를 통해 노인 일자리 증가로 인해 노인의 세금 및 의료 보험비 납부액이 증가하고, 이는 청년의 복지비 부담 경감 및 국가의 복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언급하여야 함. • 지방 의회는 노인 일자리 확충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과 이는 [문제 1]의 두 입장 중 ‘수용’의 입장임을 밝혀야 함. 	280점

[문제 1]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섯 개의 제시문을 ‘수용’과 ‘거부’(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란 두 입장으로 나누되, (가), (다), (마)를 전자의 입장, (나)와 (라)를 후자의 입장으로 각각 기술 각 제시문의 요약에 아미(또는 글로벌 팬)의 K팝 글로벌 확장 수용(가), ‘딸깍발이’의 단발령 거부(나),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및 고령화 현상 대응(다), 코닥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솔루션으로의 시장 변화를 거부한 모습(라), 두 회사(A 자동차 회사와 B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마케팅 환경 변화 수용과 새로운 홍보기법 도입(마) 등 핵심어를 포함하여 기술한 경우 [가점 요인] A0를 충족하고 다섯 개의 제시문을 ‘수용’과 ‘거부’란 두 입장으로 구분하되, 긍정적·부정적 범주의 추가 구분을 한 경우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핵심어 대신 유사어를 사용한 경우 cf. ‘수용’의 유사어: 도입, 대응 / ‘거부’의 유사어: 반발, 반감 -문장구성 등이 매끄럽지 못함. -문장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실수로 인한 문법 오류 등이 드물게 나타남.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수용’과 ‘거부’란 방식에 대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 -각 제시문의 요약이 부실한 경우 -어휘 사용의 실수가 가끔 나타남. -특정 문법 오류가 여러 번 나타남.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가끔 나타남.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수용’과 ‘거부’의 구별이 완벽하지 못하고 제시문들의 입장 분류와 요약도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 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B+의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됨. -B+ 감점 요인 중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중 일부만을 요약하거나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지 못한 경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했지만 답과 거리가 멀고 글자 수를 현저히 채우지 못한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문제 2]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의 A마을 사례가 새로운 것(모내기법)을 수용하였으나 제반 여건(수리시설, 경제력, 노동조직)이 갖춰지지 않아 부정적 결과(모내기를 하지 못함)를 낳았다는 것임을 파악 (라)의 경우 제반 여건이 없지 않았음에도(1975년 디지털 카메라 발명)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거부해 회사가 파산한 경우, (마)의 경우 A사, B사가 새로운 홍보 기법(소셜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을 적극 수용하였으나 제반 여건(브랜드 충성도 부족, 테러 위험성으로 긴장감 고조)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부정적 이미지를 얻었음을 상술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 (바)의 사례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거나 (라), (마) 글의 세부사항을 온전히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핵심어를 파악하였지만 핵심어에 근접한 표현을 사용 -문장의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못함. -문장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실수로 인한 문법 오류 등이 드물게 나타남.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 혹은 반발, 그 결과 및 이유라는 핵심 요소 중 한두 가지를 빠트린 경우 -예시가 없고, 문장의 표현이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음. -어휘 사용의 실수가 가끔 나타남.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가끔 나타남.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B+의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됨. -B+의 감점 요인 중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바)의 요지를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고 그 관점에서 (라)와 (마)의 수용과 거부 및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지적하지 못한 경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 (마), (바)의 내용 중 핵심과 관계없는 일부만을 나열한 경우 글자 수를 현저히 채우지 못한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문제 3]

등급	[채점기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프를 제대로 해석하고 청년과 노인 간에 일자리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술함. • (다)를 통해 노인 일자리 증가로 인해 노인의 세금 및 의료 보험비 납부액이 증가하고, 이는 청년의 복지비 부담 경감 및 국가의 복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근거 제시 • 지방 의회는 노인 일자리 확충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과 이는 [문제 1]의 두 입장 중 ‘수용’의 입장이라는 결론을 명확히 서술함.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 핵심어를 파악하였지만 핵심어에 근접하는 표현 사용 - 문장의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못함.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 적절한 예시가 부족함. - 적절한 어휘 사용의 실수가 드물게 나타남. - 문장의 연결이 다소 어색한 곳이 나타남. - 실수로 인한 문법 오류 등이 드물게 나타남.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 핵심어와 요지를 파악하였으나 노인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추론 혹은 노인 일자리가 정부의 복지 재정 건전성 개선을 이룬다는 추론에는 미흡 - 적절한 추론을 하였지만 핵심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함. - 예시가 없고, 문장의 표현이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음. - 어휘 사용의 실수가 가끔 나타남. - 특정한 문법 오류가 여러 번 나타남. -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가끔 나타남.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경우 - B+의 감점 요인이 2 항목 이상 포함됨. - B+의 감점 요인 중 1 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어의 일부를 사용하였으나 논리적인 추론이 결여됨. • 위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남.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함.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춤.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음.

2019학년도 모의논술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시문 1>
 애덤 스미스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의미에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며, 구성원이 법을 잘 지키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다. 법과 그 적용 및 해석이 정의에 합치되지 않거나 충분히 부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므로 공정한 사회의 기본 요건 중의 하나로 공정한 처벌이 제시된다. 공정한 처벌은 공정한 법과 그에 따른 판결을 전제한다. 부패에 대한 엄중하면서도 공정한 처벌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토대가 된다. 한 사회의 경쟁과 분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요청된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제시문 2>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와 협력정책을 이룬바 ‘햇볕정책’이라 부르기도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였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이솝 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이는 남북한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햇볕정책’을 추진한 결과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상호협력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이 교환되었고, 비전향 장기수들이 복송되었으며, 끊어졌던 경의선이 이어졌고 금강산 관광시설이 확충되었다. 또한, 개성 공업지구가 세워져 대북 지원과 경제 교역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민간 차원의 체육·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교류도 확대되었다.
 - 『고등학교 한국사』



<제시문 4>

나뭇가지를 치는 계절에는 하루에 24수*의 수입이 있었다. 그 밖에 들일, 품일, 농장의 소몰이, 농사일 등을 닦치는 대로 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다했다. 누이는 누이대로 벌었지만, 아이가 일곱이나 되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갈수록 가난에 쫓기고 몰리는 가엾은 무리들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혹독한 겨울이 왔다. 장은 일거리가 없었다. 집에는 빵이 없었다. 말 그대로 한 조각의 빵도 없었다. 어린 아이들이 일곱이나 있는데도!

어느 일요일 저녁, 파브를 교회 앞 광장에 있는 빵집 주인 모베르 이자보가 막 잠들려는 참이었다. 가게의 창살 달린 유리 진열장이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 보니 마침 그때 창살과 유리를 한꺼번에 주먹으로 깨뜨린 구멍으로 손 하나가 쑥 들어와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 손은 빵 하나를 훔쳐 가지고 나갔다.

이자보는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갔다. 도둑은 쏜살같이 달아났다. 이자보는 그를 쫓아가 붙잡았다. 도둑은 이미 빵을 내던져 버려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팔에서 아직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가 바로 장 발장이었다.

이것은 1795년에 일어난 일이었다. 장 발장은 ‘한밤중 남의 집 창을 부수고 도둑질한 죄’로 재판관 앞에 끌려나갔다.

<중략>

장 발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전의 규정은 뚜렷했다. 우리들의 문명에도 두려운 시기가 있다. 형벌이 인생의 파멸을 선언하는 때이다. 사회가 멀어지고 하나의 정신을 지닌 인간이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버림받는 순간, 아, 그것은 얼마나 저주스러운 순간인가! 장 발장은 5년의 징역을 선고 받고 항구의 감옥으로 가게 되었다.

*수(sou): 프랑스의 옛 화폐 단위

- 『고등학교 문학』

<제시문 5>

일본의 전통 씨름인 스모에서 선수들의 순위는 그들의 인생 전반을 지배한다. 수입과 추종자들의 수, 얼마나 많이 먹고 자야 하는지,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등등. 엘리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가까울수록 선수들은 더 많은 수입을 올리며 마치 귀족과도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스모 선수의 순위는 정규 대회의 결과로 결정된다. 각각의 선수들은 열다섯 번의 시합을 가지는데, 8승 이상의 전적으로 대회를 마치면 순위가 상승하며 7승 이하의 전적으로 패배하면 순위가 하락한다. 따라서 스모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합은 8승째를 가르는 순간이다. 위로 올라갈 것인가 밑으로 추락할 것인가가 그 한 시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8승6패의 전적으로 이미 순위 상승이 확정된 선수가, 7승7패를 기록하고 있어 마지막 15번째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상대 선수에게 일부러 저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럼 스모 시합이 조작될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다음의 통계수치는 대회 마지막 날 7승7패의 선수들이 8승6패의 선수들을 맞아 싸운 몇 백 건의 시합 기록을 종합한 것이다. 왼쪽은 그날 싸우는 두 선수들의 과거 시합 기록을 바탕으로 7승7패의 선수들이 승리할 확률을 계산한 것이며, 오른쪽 숫자는 그들이 실제로 시합에서 이긴 확률이다.

과거 성적을 바탕으로 한 예상 승률	실제 시합에서의 승률
48.7%	79.6%

이 통계에 의하면 예상 승률보다 7승7패의 선수들의 실제 승률이 턱없이 높았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선수들 사이에 일종의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 정말 위험한데, 오늘 내가 이기게 해주면 다음번에는 내가 저줄게.” 엘리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주어지는 보상으로 인해 이러한 야합이 일어난 것이다.

- 스티븐 레빗 · 스티븐 더브너, 『괴짜 경제학』재구성

<제시문 6>



학교 주변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 하지만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어기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줄지 않으면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의 단순 법규위반에 따른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중 92.7%를 차지한다.

법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일반도로보다 높은 벌점과 두 배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도 미미하며 긍정적 보상책 역시 논의되고 있으나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적인 유인책보다, 운전자의 경각심과 아이들의 주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스쿨존 횡단보도에 시도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횡단보도 앞 ‘옐로카펫’이다. 옐로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고안한 교통 안전시설로서, 강요나 보상에 의하지 않고 내적 동기를 자극해 자연스럽게 선택을 이끄는 힘이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이용한 장치다.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통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옐로카펫 설치 시 횡단보도 대기선 안에서 보행자가 대기하는 비율은 66.7%에서 91.4%로 약 24.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율은 41.3%에서 66.7%로 25.4%P 높아져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도로교통공단, 『옐로카펫 설치효과분석』재구성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에 관한 글이다.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문제 2]

〈제시문 6〉의 입장에서, 〈문제 1〉의 두 입장이 공통적으로 갖는 한계를 〈제시문 4〉와 〈제시문 5〉를 활용하여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제 3] (인문계)

다음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떤 것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더 효과적일지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We don't like to lose things that we own. We tend to become extremely attracted to objects in our possession, and feel anxious to give them up. Ironically, the more we have, the more vulnerable we are. Having accumulated wealth implies that we have more to lose than to gain.

Why are we so afraid of losing? Our aversion* to loss is a strong emotion. The aversive response reflects the critical role of negative emotions (anxiety and fear) to losses. In other words, loss aversion is an expression of fear. This explains why we tend to be affected by the negative incentives more than the positive ones. As Charles Darwin once said, "Everyone feels blame more acutely than praise."

We are more upset about losing \$10 than we are happy finding \$10. Roughly speaking, losses hurt about twice as much as gains make you feel good. This is why in marital** interactions it generally takes at least five kind comments to offset for one critical comment.

* aversion: 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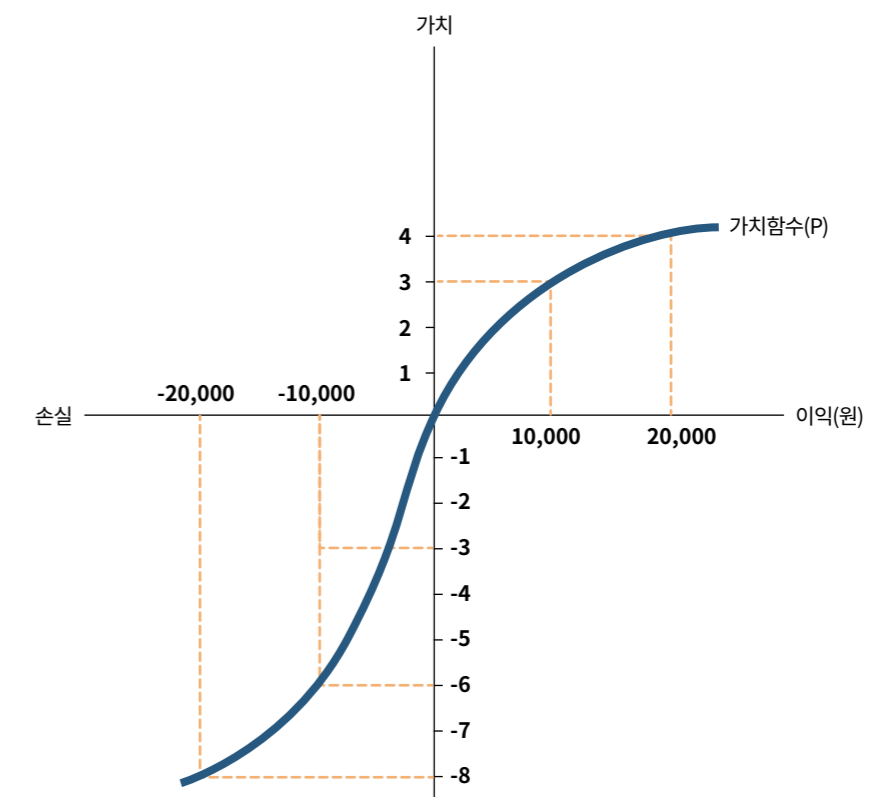
** marital: 부부간의

- Shahram Heshmat, "What Is Loss Aversion?" (www.psychologytoday.com) 재구성

[문제 3] (사회계)

다음 그래프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떤 것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더 효과적일지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그림〉 이익과 손실에 관한 가치함수



출처: EBS 인터넷 수능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A형)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문항세트는 인문계열, 사회계열의 두 분야로 나누어 출제하였고, 각 계열은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1]은 분류·요약, [문제 2]는 비판·평가, [문제 3]은 적용·추론의 능력을 측정하며 3번 문항은 계열별로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 인문계열은 영어지문을 문항의 부분으로 추가 제시하여 외국어 지문의 이해능력 측정을 포함시켰고, 사회계열은 자료의 해석을 통한 추론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각 문항마다 개별적인 측정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제시문의 핵심어, 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분류, 연계하는 능력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 문항별 출제 의도는 아래와 같다.

[문제 1]은 <제시문 1>부터 <제시문 5>까지를 읽은 후, 변화를 일으키는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제시문들을 구분하고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시문들로부터 처벌과 보상이란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을 읽어낼 수 있는지, 나아가 <제시문 1>과 <제시문 4>를 ‘처벌’을 통한 변화 유도 방식으로, <제시문 2>, <제시문 3>, <제시문 5>를 ‘보상’을 통한 변화 유도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섯 개의 제시문을 각각 요약하게 함으로써 핵심어를 이용한 요약 능력을 보고자 하였다.

[문제 2]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강제적인 처벌이나 유인책보다 내적 동기의 자극을 통한 자발적인 행동의 변화가 더욱 효과적이다”라는 <제시문 6>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적인 처벌과 유인책을 평가하여 그 한계점을 비판하는 문제로 대학수학능력의 기초가 되는 비판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6>은 스킨제어에서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습관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범칙금 부과나 유인책을 보다 ‘옐로 카펫’이라고 하는 단순한 장치가 교통 사고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임을 이야기 하는 내용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4>에 나타난 처벌과 <제시문 5>에 나타난 보상책을 묶어서 평가하고, 외부적인 처벌/유인책은 효과적이지 못할 뿐더러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공통의 한계점을 정확히 비판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제 3] (인문계)에서는 주어진 영어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요지를 파악하여, [문제 1]에서 파악한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이를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방안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먼저 영어지문의 요지는 “획득을 통한 보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소유물을 상실했을 때의 두려움이 더 크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문제 1]에서는 <제시문 1~5>를 통하여 “보상”과 “처벌”이라는 핵심어를 찾았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 두 개념을 연결시켜서 결론을 도출해야만 이 문항의 답안을 적절하게 작성할 수 있다. 즉, “손실회피”의 성향이 곧 “보상” 보다는 “처벌”에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추론이 가능해야 한다. 이 연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이 “보상”이라기보다는 “처벌”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즉,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이 적절히, 그리고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이 문항의 정답 작성이 가능하다. 첫째, [문제 1]의 풀이과정에서 발견해야 하는 핵심어인 “보상”과 “처벌”의 대립적인 분류, 둘째, 영어지문의 정확한 내용 파악을 통한 핵심개념인 “손실회피성향”의 발견, 셋째, “손실회피”와 “처벌”이라는 개념의 연계를 통한 결론 도출 등이다. 수험자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정확히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과, 이러한 추론의 진행을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능력을 함께 보려는 것이 이 문제출제의 의도이다.

[문제 3] (사회계)은 다양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가치함수를 바탕으로 [문제 1]에서 제시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처벌/보상 방법의 효율성 측면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즉 본 문제에서는 <제시문 1~5>에서 보여주는 처벌/보상에 대한 다양한 사례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처벌과 보상이 사람들이 느끼는 손해와 이익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가치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또한 이익과 손해가 보여주는 비대칭의 가치함수를 바탕으로 처벌/보상을 통

한 변화의 효율성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적절한 답안의 작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이 적절히, 그리고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문제 1]의 풀이과정에서 대립적인 개념의 핵심어인 “보상”과 “처벌”이 발견되어야 한다. 둘째, 가치함수 그래프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핵심 개념인 “손실회피성향”이 인지되어야 한다. 셋째, “손실회피”와 “처벌”이라는 개념을 연계하여 행동 변화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수험자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정확히 진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과, 이러한 해석 및 추론의 진행을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능력을 함께 보려는 것이 이 문제출제의 의도이다.

[문제 3] (인문계)의 영어 지문 번역

인간은 손실을 싫어한다.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애착이 강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감은 더 심해진다. 부를 축적했다는 것은 결국 얻을 것 보다 잃을 게 많다는 의미이다.

왜 우리는 그토록 손실을 두려워하는가? 손실회피성향은 강한 감정의 발로이다. 회피성 반응이 있다는 것은 근심이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손실회피는 공포심의 표현이다. 이것이 왜 우리가 긍정적인 인센티브보다 부정적인 인센티브에 더 영향을 받는 가를 잘 설명해준다. 찰스 다윈은 “누구나 칭찬보다 비난을 더 예민하게 감지한다.”라고 표현하였다.

우리는 \$10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10를 분실하고 더 화를 낸다. 대략적으로, 손실의 아픔은 획득의 행복감보다 두 배 정도 크다고 한다. 이것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한 번의 비난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의 칭찬을 해주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채점 기준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를 일으키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인 “처벌”과 “보상”이 언급되어야 함. • 다섯 개의 제시문들이 처벌과 보상이란 기준에 맞춰 분류되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 	210점
문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6>에 나타난 내적 동기 자극을 통한 자발적 변화의 효과가 서술되어야 함. • 내적 동기 자극을 통한 자발적 변화와 외적/의도적/강제적 처벌과 유인의 차이점이 부각되어야 함. • 내적 동기 자극을 통한 자발적 변화의 입장에서 외적/의도적/강제적 처벌과 유인의 부작용과 비효율성이 비판되어야 함. •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예시가 활용되어야 함. 	210점
문제 3	<p><인문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1]의 풀이과정에서 논의되었을 대립적인 개념인 “보상”과 “처벌”이 언급되어야 함. • 추가로 제시된 영어지문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핵심 개념인 “손실회피성향”이 인지되어야 함. • “손실회피”와 “처벌”이라는 개념을 연계하여 행동 변화방안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함. • 위 과정들이 적절한 어휘선택과 논리적인 구성을 통해 가독성있게 서술되어야 함. <p><사회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1]의 풀이과정에서 논의되었을 대립적인 개념인 “보상”과 “처벌”이 언급되어야 함. • 추가로 제시된 가치함수 그래프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핵심 개념인 “손실회피성향”이 인지되어야 함. • “손실회피”와 “처벌”이라는 개념을 연계하여 행동 변화방안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함. • 위 과정들이 적절한 어휘선택과 논리적인 구성을 통해 가독성있게 서술되어야 함. 	280점

[문제 1]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섯 개의 제시문을 ‘처벌’과 ‘보상’(긍정적 또는 부정적 유인)이란 두 입장으로 나누되, 제시문 1, 4를 전자의 입장으로, 제시문 2, 3, 5를 후자의 입장으로 기술한 경우 • 이와 더불어 각 제시문의 요약에 공정한 처벌(<제시문 1>), ‘햇볕정책’(<제시문 2>), 영수증 복권화(<제시문 3>), 유죄판결을 받은 장 발장(<제시문 4>), 스모선수들의 보상을 위한 승부조작(<제시문 5>) 등의 핵심어를 포함하여 기술한 경우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핵심어 대신 유사어를 사용한 경우 • 문장구성 등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처벌’과 ‘보상’이란 방식에 대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 • 각 제시문의 요약이 부실한 경우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처벌’과 ‘보상’의 구별이 완벽하지 못하고 제시문들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 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중 일부만을 요약하거나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지 못한 경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답과 거리가 멀고 글자 수를 현저히 채우지 못한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문제 2]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6>의 핵심 논점으로 내적 동기 자극을 통한 자발적인 변화 유발이 더욱 효과적임을 파악하였으며, 그를 통해 문제 1의 외부적인 처벌과 보상이 부작용이 있고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 • ‘내적 동기 자극을 통한 자발적 변화’ 대 ‘외부적/강제적/의식적 유인책 (처벌과 보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며 처벌과 보상의 공통적인 한계로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효과의 미미함을 <제시문 4, 5>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지적함.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6>의 핵심 논점으로 내적 동기 자극을 통한 자발적인 변화 유발이 더욱 효과적임을 파악하였으며, 그를 통해 문제 1의 외부적인 처벌과 보상이 부작용이 있고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6>의 요지로 내적 동기 자극을 통한 자발적인 변화 유발이 더욱 효과적임을 파악하였으나, 그 관점에서 외부적인 처벌과 보상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함. •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긴 하나,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함.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6>의 요지로 내적 동기 자극을 통한 자발적인 변화 유발이 더욱 효과적임을 파악하였으나, 그 관점에서 외부적인 처벌과 보상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함. •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문제점 중 하나만을 지적함.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6>의 요지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못하고 그 관점에서 외부적인 처벌과 보상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함.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4, 5, 6>의 내용 중 핵심 내용과 관계없는 일부만을 나열한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문제 3] (인문계)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1>의 두 입장을 “보상”과 “처벌”의 핵심어를 사용하여 제시 • 문항에 포함된 영어지문을 적절히 요약: “보상의 기쁨” 보다 “손실의 상실감”이 더 크다는 요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처벌”이 곧 “손실”을 유발한다는 추론이 포함되어야 함. • “처벌”이 “보상”보다는 변화를 유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어야 함. • 적절한 예시가 주어져야 함 (예: 같은 양의 손실이 획득보다 더 큰 상실감을 주는 예 등). • 문장의 표현이 매끄러움 (예: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 문장의 연결과 구성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임 (예: 적절한 접속어를 사용한 연결). • 주어진 자수(600자) ±10%의 오차 이내로 작성함.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됨, 그러나 -핵심어를 파악하였지만 핵심어에 근접하는 표현(예: ‘손실’ 대신 ‘손해’)을 사용 -문장의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못함. -문장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적절한 예시가 부족함. -적절한 어휘 사용의 실수가 드물게 나타남. -문장의 연결이 다소 어색한 곳이 나타남. -실수로 인한 문법 오류 등이 드물게 나타남.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됨, 그러나 -핵심어와 요지를 파악하였으나 “처벌”이 곧 “손실”로 연결된다는 추론에는 미흡 -적절한 추론을 하였지만 핵심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함. -예시가 없고, 문장의 표현이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음. -어휘 사용의 실수가 가끔 나타남. -특정한 문법 오류가 여러 번 나타남.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가끔 나타남.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됨, 그러나 -B+의 감점 요인이 2 항목 이상 포함됨. -B+의 감점 요인 중 1 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어의 일부를 사용하였으나 논리적인 추론이 결여됨. • 위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남.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함.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춤.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음. 	

[문제 3] (사회계)

등급	채점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프 해석에 있어 좌우가 비대칭임을 인지하고 이익일 때 느끼는 가치보다 손실일 때 느끼는 가치 상실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한 경우 •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익(손실)이 [문제1]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상 (처벌) [혹은 긍정적 유인 (부정적 유인)]과 연관 지은 경우 • 가치함수에 근거하여 처벌이 보상보다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가 더 크고 결국 처벌이 보상보다 효율적으로 행동변화를 일으키는 요지를 명확하게 기술한 경우 • [가점 요인] A0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항목을 기술한 경우 A+로 인정함 - 그래프 해석에 있어서 이익과 손실이 늘어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결국 보상과 처벌이 늘어날 수록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언급한 경우(그러나 처벌이 보상보다는 효율적으로 행동 변화를 일으킨다는 부분은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프 해석에 있어 이익일 때 느끼는 가치보다 손실일 때 느끼는 가치상실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해석하고 가치함수에 근거하여 처벌(부정적 유인)이 보상 (긍정적 유인)보다 효율적인 행동변화를 일으킨다는 요지를 명확히 기술하였으나, - 좌우가 비대칭임을 인지하지 않고 기술한 경우 - 이익과 손실이 [문제1]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 보상(긍정적 유인)과 처벌(부정적 유인)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은 경우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함수에 근거하여 처벌 (부정적 유인)이 보상(긍정적 유인)보다 효율적인 행동변화를 일으킨다는 요지는 파악하였으나, - 가치함수 그래프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 가치함수의 해석과 [문제1]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함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하였으나 처벌이 보상보다 효율적인 행동변화를 일으킨다는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함수 그래프나 [문제1]의 요지는 기술 하였으나 비교 분석 모두 모호한 경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함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1]의 요지도 제시하지 못한 경우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와 전혀 다른 내용을 서술한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진리·평화·창조'의 창학정신을 바탕으로

'자주적·국제적·독창적 지식인'을 양성합니다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유연하고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로

더 큰 세계를 품을 미래의 주역을 만듭니다

어문, 인문, 언론, 외교, 통상 분야를 비롯하여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끄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